금주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은 각 개인이 함께 모여 주님의 몸 된 교회공동체를 이루고 주신 사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찌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www.chpress.net | 주후 2020년 2월 1일 (토) 제 1764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함께 먹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

Churchleaders.com, 몰링대학 M. 프로스트 선교학교수의 교회다움의 새 방법 '디너처치' 소개

21세기 첨단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회의 모습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교회가 점차 쇠퇴해가면서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자 새로운 양상의 교회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교회들이 진정한 교회냐 라는 의문이 대두되기도 하지만 기독교 부흥을 갈망하는 무리들에 의해 여기저기서 진행되고 있다. 처치리더스.컴은 또 다른 교회(기독교인들의 모임) 형태 '디너처치'에 대한 이 시드니 몰링대학 선교학과 마이크 프로스트 교수의 글을 게재했다.

최근 영국 레스터에서 새로운 표현에 대한 블로그 게시물과 오늘날 교회의 역할과 교회다움의 새로운 방법에 대한 반응이 꽤 있었다. 이 새로운 방법이 어떨지에 대해 관심이 컸고, 그중 하나가 바로 '디너처치(dinner church)'이다. 이에 대해 세계 여러 라디오방송국과 인터뷰를 했다.

새로운 방법이 어떨지 물을 때마다, 항상 '디너처치'에 대하여 얘기했고, '디너 처치'는 새로운 성도를 모을 정말 아름답고, 간단하고, 해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건 나(Mike Frost, 시드니 몰링대학 선교학과)만의 생각이 아니다. 작가이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장 일반적으로 '디너처치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라고 대답한다."

그렇다면 '디너처치'란 무엇인가? 그저 평범한 저녁과 교회다. 말 그대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말 이상의 것으로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궁무진하다.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한 몇 가지 예가 있다(Dinner Church, Anyone?)

브루클린의 '성 리디아즈(St Lydia's) 교회'

'성리디아즈교회'는 최초 디너처치였다. 이들은 함께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음식을 준비한다. 교회에 도착하면, 국솥 젓기, 채소 썰기, 식탁 차리기 등과 같은 일을 맡게 된다. '성리디아즈교회'에서는 음식을 함께 준비하는 것도 체험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준다. 그러고 나서, 식탁 주위에 앉아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성경에 대해 알아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권면 받는다.

'성리디아즈교회'의 예배(liturgy)는 2-3세기 초대교회 예배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당시 기독교인은 소위 '애찬(愛餐)식'을 하기 위하여 모였다. '애찬식'은 성찬식을 중심으로 음식을 신성하게 나누는 것이다.

그들은 2세기 초대교회 문서인 '디다케'의 성찬 기도문으로 식사를 축복하고, 기도자가 기도를 외치면, 회중이 이에 회답하며 찬송한다. 그리고 식사하면서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를 서로 나눈다. '이야기'는 디너처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그것에 비추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의 죽음과 부활을 발견하고자 한다.

시카고의 '루트&브랜치 교회(Root&Branch Church)'

'Root&Branch 교회'는 일리노이 주의 시카고에 위치해 있다. 매달 주일 2번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모이지만 둘째 주와 넷째 주 주말에는 여러 사람의 집에서 디너처치로 모인다.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 독서, 성찬식, 그리고 봉사자가 준비하는 맛있는 식사가 있는 예배(liturgy)를 드린다.

〈3면으로 계속〉

3면
시 론
은희곤 목사

7면
한국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16면
인//터/뷰/
유호정 목사

사 고

'2020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 배포

본지가 발행한 '2020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 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배부 장소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우송료 별도)

지역별 배부장소

▶ 뉴욕, 뉴저지 지역

한국서적	(718)762-1200
할렐루야 기독백화점	(718)762-0011
할렐루야 기독백화점(NJ)	(201)373-0029

▶ 서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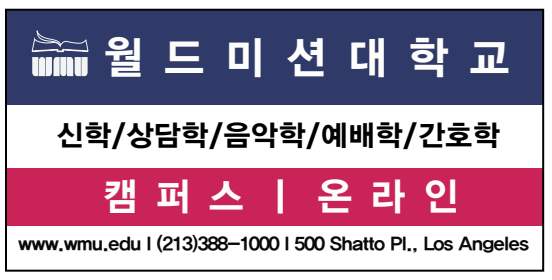
기독교서적센터	(323)737-7699
도르가기독교서점(OC)	(714)636-7430
생명의말씀사(OC)	(714)530-2211
복음사(OC)	(562)865-4949
두란노서적	(213)382-5400

▶ 기타지역

커네티컷	하트포트 제일장로교회	(860)643-4738
일리노이	시카고기독교방송국	(847)583-0191
메릴랜드	지구촌교회	(301)460-1656
버지니아	주예수교회	(804)560-7500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215)542-0288
	벅스카운티장로교회	(215)945-1512
노스캐롤라이나	전기현회계사	(704)332-5656
북가주한인기독교티비 방송국		(408)433-0001
조지아 아틀란타생명의말씀사 서점		(678)957-1021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NY사무실	(718)886-4400
LA사무실	(323)665-0009



● 발행인 칼럼 ●

데스 포인트(Death Point)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데스 포인트(Death Point)"란 더 이상 살 수 없는 한계점을 의미한다. 생물들이 고온이거나 저온의 환경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고, 사람들이 체력이 고갈되어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지점을 "데스 포인트"라고 부른다. 축구경기에서는 후반 30분 즈음에, 42.195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에서는 30km 정도에 "데스 포인트"가 찾아온다고 한다. 그 증상으로 모든 근육이 경직되고 가슴에는 통증이, 마음에는 공포감이 생긴다고 한다.

온 세상이 "데스 포인트" 공포로 떨고 있다. 지난 1월 23일 미국 핵과학자회(BAS)는 지구종말 시계를 공개하였다. 그 시계는 자정 100초 전(前)을 가리키고 있었다. 핵위협과 기후변화를 감안할 때 인류가 최후를 맞는 시점이 100초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류에게 "데스 포인트"가 코앞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 지점이라고 과학자들이 외치고 있다. 그 뿐이 아니다. 우한폐렴이라 일컫는 신종 코로나 전염병은 사망자와 감염자를 기하급수(幾何級數)로 늘리면서 온 세계를 "데스 포인트"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데스 포인트"는 정녕 절망의 시간인가? 포기의 시간인가? 죽음의 시간인가? 아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라. 마라톤 선수들이 "데스 포인트"를 잘 극복하면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되면서 마지막 골인지점까지 큰 어려움 없이 달릴 수 있다고 한다.

개인 앞에 다가 온 "데스 포인트"이든지, 인류에게 닥친 "데스 포인트"는 결코 절망의 시간이나 포기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류시화 시인의 책 가운데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책 제목이다. "데스 포인트"는 그 이름처럼 마침표로 여길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좌절할 수 있다. 그러나 "데스 포인트"를 마침표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역사의 마침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 이전까지 우리가 느끼는 "데스 포인트"는 모두 쉼표로 삼아야 한다. 묵상의 쉼표, 회복의 쉼표, 회개의 쉼표, 각성의 쉼표로 삼아야 한다. "데스 포인트"는 죽을 것 같이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새로운 희망의 길로 나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바울에게도 죽을 것 같은 "데스 포인트" 지점이 있었다. 그 때 그는 어떻게 하였는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후 1:8-9). 바울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데스 포인트"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또 달렸던 것이다.

올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막 넘었다. 지난 한 달 안에도 벌써 "데스 포인트"가 찾아왔고 또 올해의 마지막을 향해 달리다보면 "데스 포인트" 같은 지점이 몇 차례 더 다가올 것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이유가 너무 많이 존재하는 힘겨운 지점이 왜 없겠는가? 하지만 어떤 "데스 포인트"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지점이 오히려 영적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 너무나 힘든 "데스 포인트"이라면 들어보라. 이 땅의 무수한 "데스 포인트"를 뛰어 넘어 마침내 천국에 이른 구름 같이 둘러싼 저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의 응원 소리를.

인류 종말까지 남은 시간 "100초"!

BBC, 핵과학자회 둠스데이 시계 자정 100초 전 수정 보도

인류 최후의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개념적으로 표현한 '둠스데이 시계(Doomsday Clock)'가 자정 100초 전으로 수정됐다.

핵과학자회보(BAS)는 2019년까지 자정 2분 전에 맞춰져 있던 시계가 핵전쟁과 기후변화 그리고 사이버 기반의 허위 정보 때문에 종말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섰다고 밝혔다(Doomsday Clock nears apocalypse over climate and nuclear fears).

1947년 핵전쟁 위기를 앞두고 처음 만들어진 둠스데이 시계는 11시 53분에서 시작해 국제 정세에 따라 시간이 조정됐다.

미국이 수소폭탄을 개발한 1953년에 자정 2분 전으로 조정돼 최고 수준 위기를 경고했고, 냉전 해체 등을 거치면서 1991년에는 자정 17분 전까지 완화됐다.

최근에는 2015년 북핵 위기 이후 자정 3분 전을 기록했고 이후 꾸준히 시간이 앞당겨져 지난해 자정 2분 전까지 조정됐다.

올해 기록된 자정 전 100초는 역대 가장 적은 시간이다.

레이첼 브론슨 BAS 회장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분 단위가 아닌 초 단위로 시간을 세게 됐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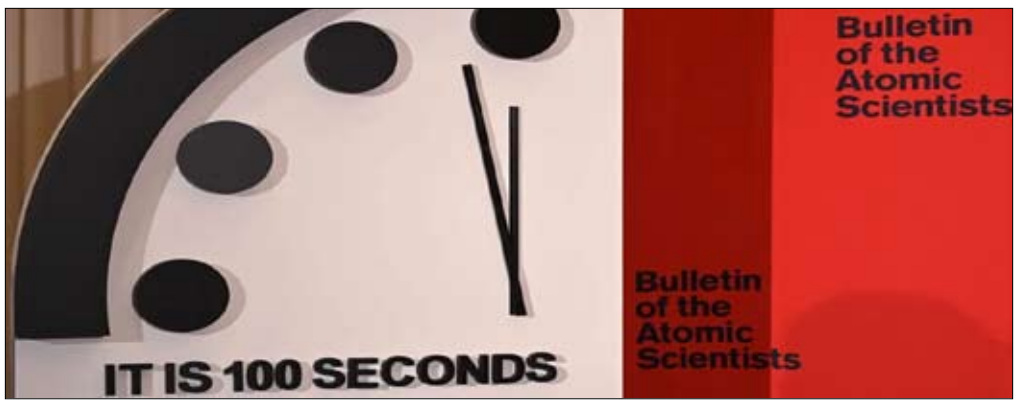
그는 현재 세계 지도자들이 점점 악화하고 있는 위협에 맞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무시하거나 폄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우리가 모두 대응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나의 국가 혹은 개인이 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하고 함께 여야 해낼 수 있습니다."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 역시 자리에 참석해 초강대국들의 위험한 경쟁의식과 공격성이 핵전쟁의 위협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 변화 역시 종말 위험에 기여한다며 "깨어나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고 호소했다.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세계가 깨어나야 한다"며 자신이 "화난 할머니"가 된 듯한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조지타운 대학 샤론 스쿼서니 교수는 올해 이란 핵협상의 좌초와 북한의 핵 개발 성과 탓에 핵전쟁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천체 물리학자 로버트 로스너는 "시계가 단 자정 100초 전으로 당겨진 것은 몹시 나쁜 소식"이라며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건 끔찍한 일"이라고 더했다.



종말 근접 경고...시계 지연위해 해결할 최우선 과제 제시:
유전자조작, 기후변화, 소셜미디어 진화, 지정학적 새 갈등

BAS는 매년 그 해 1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모여 각종 분야의 변화를 종합 분석해 분침을 조정한다.

한편 BBC는 둠스데이 시계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인류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들을 정리해준다.

사람의 유전자 조작

획기적인 발견이었지만, 이 기술이 윤리적으로 어두운 길을 택하는 순간, 우생학과 같은 헛된 프로젝트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지능 또는 특정 신체조건을 갖춘 '디자이너' 아기들을 찍어내는 기술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해야 할 '위대한 도전(Grand Challenge)'으로 여겨질 만큼 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 방면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기술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같은 이유로 DNA 조작이 가능한 실험실과 대학, 회사에서 윤리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사라진 도시들

마이애미와 같은 곳에서는 21세기에 도시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도시들은 사라져가고 있다. 기후변화 때문에 홍수가 잦아졌고, 날씨의 변화로 건물 모양새 또한 달라졌다. 더 많은 방파제가 설치됨은 물론, 시에서는 모든 새로운 건축물이 두 번째 층을 더 높이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래봐야 임시방편일 뿐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는 거대한 도시와 섬들, 그리고 방글라데시 같은 저지대들이 통째로 바다 밑으로 사라지게 생겼다. 이러한 침수는 각 지역에 지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기후 난민은 일반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이미 도시들은 불어나는 인구로 인한 압박을 받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대규모 인구 이동이 발생한다면, 현존하는 기반시설과 서비스, 경제 체제는 한계점에 이를지도 모른다.

소셜미디어의 진화

적어도 지난 5년간 소셜미디어에 의해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만큼, 그 영향력이 가까운 미래에 사라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런 소셜미디어를 둘러싼 문제는 복잡하다. 30년 후 소셜미디어의 모습은 어떻고, 과연 어떠한 위협을 품고 있을까?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323)665-0009(대표) (213)674-7982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0. July 6. and Nov 30.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함께 먹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

〈1면에서 계속〉

그들은 "이 교회는 가장 기초적 필요인, 음식과 좋은 동료로 세워진 공동체"라고 말한다. 그들이 설명하는 교회의 비전이 매우 좋았는데, 그것은 낯선 이에서 이웃으로, 소비자에서 창조자로, 방랑자에서 경외자로 성장하면서,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다.

밀턴 케인스의 '벽이 없는 교회(Church Without Walls)'

'벽이없는교회'는 런던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밀턴킨스에 위치해 있다. 이 교회에 다양한 예배가 있지만, 매달 네 번째 주일에는, 특별히 지역 학교 강당에서 디너처치가 열린다.

그들은 구운 통감자와 파스타 피자와 같은 간단한 요리를 먹으며 함께 짧은 성경 구절과 그에 대한 묵상을 듣고, 그것에 대해 함께 나누며 기도한다.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는 유아용 의자와 장난감을 제공하는 등 전체적으로 가족 친화적이며 허물없는 분위기를 띤다. 그들은 "원래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은 늘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니어서 와서 우리와 함께합시다!"라고 말한다.

칼룬드라의 '벨스 디너처치(Bells Dinner Church)'

'벨스디너처치'는 매 주일 오후 5시 퀸즐랜드 주의 아름다운 선샤인 코스트에 위치한 칼룬드라의 한 지역 학교에서 모인다. 나는 친구를 통해 이 교회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 친구는 이 교회에서 '벨스(BELLS)'라는 초성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혹시 그 교회가 나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궁금했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일전에 선교하는 사람들의 5가지 습관을 제시한 "세상을 놀라게 하라(Surprise the World)"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내가 사용한 초성이 '벨스(BELLS)'였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들을 축복(Bless)하고, 사람들과 먹고(Eat),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Listen),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Learn), 세상으로 보내졌다(be Sent)'라는 의미를 갖는다.

알고 보니, '벨스디너처치'가 초성을 도용한 게 아니라 변형시켰을 수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벨스디너처치'가 사용하는 '벨스(BELLS)'는 '속하고(Belong), 먹고(Eat), 듣고(Listen), 배우고(Learn), 봉사한다(Serve)'라는 의미들을 담은 것으로 굉장히 근사했다. '벨스디너처치'는 만나고, 먹고, 함께 배우고, 우리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 봉사하도록 서로 격려한다.

벨파스트의 '트라이브 교회(Thrive Church)'

아일랜드에 여성 '이야기 식탁 모임'을 하려고 만들어진 '트라이브'라는 정말 흥미로운 디너처치가 있다. 그들은 여성들이 자유롭게 열린 마음으로 음식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한 환경에서 매달 모인다.

'트라이브교회'는 'Redeemer Central'에 속해 있는데, 이는 도시 중심부에 있는 아름답고 역사적인 교회 건물에서 모이는 새로운 교회다. 비록 디너처치가 정규 예배는 아니지만, 그들은 카페와 같은 곳에서 모임을 한다.

'디너처치 공동체'

시애틀에서, 도시 주변에 10개의 모임을 개설하면서 다음 단계로 디너처치가 열렸다. 'Verlon'과 'Melodee Foster'가 시작한 이 '디너처치공동체'는 이제는 시애틀 전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회에 대한 자원공급과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가 됐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디너처치를 설명한다.

"디너처치는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모두의 흥미를 일으키는 관습입니다." "이것은 간단하며,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시대의 교회 교부들이 신자들에게 다가가고 훈련시키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음식, 음악, 그리고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디너처치가 교회의 역할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거나, 반드시 최고의 방법이라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는 세계 곳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새롭고 신선한 방식의 교회를 찾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 혹은 몇 개의 테이블, 몇 가지의 음식, 기본적인 예식, 환대하는 마음, 많은 기도와 인내와 은혜, 그리고 당신의 삶을,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삶과 닮아가기를 원하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 아마도 디너처치를 열도록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인류 종말까지 남은...

〈2면에서 계속〉

소셜미디어 때문에 사생활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가 있다. 이 문제는 벌써 가시화됐다. 익명성과 사생활에 대해 우리는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셜미디어는 사이버 괴롭힘 등 온라인 폭력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을 일으킨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자선단체와 비영리 기구가 '인터넷 트롤'에 대항하고 있지만, 소셜미디어 회사들과 법집행기관들의 노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또 잊지 말아야 할 문제는 우리의 변해가는 정보 식습관이다. 계속해서 거짓 뉴스가 팽배하면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개개인이 수개월,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오직 신뢰하기 어려운 뉴스만 접한다면, 이것이 시민사회와 열린 토론에 좋은 전조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빠르게 발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몇몇 긍정적인 사람들은 위와 같은 문제들 또한 금방 해결될 것이라 말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30년 후에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문제들은 지금으로선 생각도 못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보면 사실 페이스북이 생긴 지도 13년밖에 되지 않았다.

새로운 지정학적 갈등

그간 조심스레 유지해온 지정학적 균형은 지난 수년 동안 완전히 무너졌다. 그 결과 앞으로 몇 십년간 세계 정세의 안정성이 큰 물음표로 남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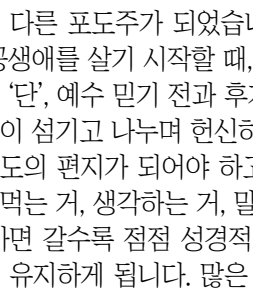
북한의 미사일 실험. 재앙을 피해 국경을 넘는 수천 명의 난민.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한 해커들. 세계적으로 끓어오르는 국수주의 감정. 2016년과 2020년 현재까지 끊임없는 정치적 드라마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그것이 예측 불가능한 북한을 상대하는 것이든 시리아 난민들의 역경이든 영국의 EU 탈퇴이든 그리고 트럼프의 기행이든 이러한 정치적 드라마는 '지정학적 지뢰밭'을 형성하고 '초유의 지정학적 지각변동'을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 만연한 해킹과 핵미사일 등 위험한 기술력을 추가하면 기초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시 론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리라!



은희곤 목사
(뉴욕 참사랑교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적에는 소니에서 나오는 CD PLAYER나 CASSETTE RECORDER 같은 거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고, 그런 거 하나 있으면 괜히 학교 가서 폼 좀 잡았습니다. 한때 위세를 떨쳤던 소니도 지금은 그렇지 못한 거 같습니다. 대기업들 가운데서 몇 대를 거쳐 장수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매년 '포춘'지가 발표하는 세계 500대 기업의 평균수명은 놀랍게도 약 40년 정도라고 합니다. 공인된 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일본 1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은 30년, 한국기업은 23.8년입니다. 한국의 삼성, 엘지 같은 기업은 세계적으로 '반도체'로 유명합니다. 반도체 공장에 가보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머리에는 하얀 모자를 쓰고, 하얀 작업복을 입고, 하얀 마스크를 쓰고, 하얀 장갑을 끼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냥 얼핏 보면 꼭 의사, 간호사들이 왔다갔다 하는 병원 같습니다. 이런 방진작업이 필요한 것은 반도체에게는 입김 하나, 먼지 하나 떨어지는 것조차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오염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의외로 사람 몸에서 떨어지는 '각질'이라고 합니다. 얼핏 볼 때 사람의 몸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서는 세포가 끊임없이 죽어서 각질로 떨어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자라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사람은 뱀처럼 낡은 허물을 벗지는 않지만 약 5년이면 몸의 세포가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몸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5년마다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죽음의 세포와 싸우며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가기에 생명이 보존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묘막측하신 손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나타난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물이 깨끗한 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성분이 다른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례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신앙의 공생애를 살기 시작할 때, 주제는 '변화'라는 것을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끊을 '단',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섬기고 나누며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고 생명의 냄새를 풍겨야 합니다. 나의 가치관, 마음먹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관계 맺는 거, 섬기며 나누는 거 등등이 가면 갈수록 점점 성경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영적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가 두렵다고들 합니다. 나이 먹어서 변화가 불가능하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화를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열어나간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변화의 삶으로 도우시고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장에서 나오는 학생이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시험을 잘 봤을 텐데, 시합에서 진 운동선수가 더 열심히 연습했으면 이겼을 텐데,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낳은 사람이 되었을 텐데 등등 '후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을 레슨 삼아 더 낳아지는 것이 '참회'라면 우리들은 새해를 '후회'가 아닌 '참회'로 출발해야 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에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맡긴 자 그리고 각기 4달란트와 10달란트가 되었을 때, 분명 양적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 같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보다 많은 것을 맡길 것이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돈이 많고 적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힘이 있고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건 아니건 등등의 양적 차이가 아닙니다.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하였는가?"입니다. 2020년 끝자락에 우리는 올 한해 동안 정말 주님 바라보며 치열하게 살았노라고 떳떳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했을 때 결과가 어떠하든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으며 결과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최선에 더하여 주시는 성서적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2020년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아무 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도화지와도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그 위에-하나님나라 백성으로서의 점진적 변화 그리고 맡겨진 사역들을 최선 다해 섬기셔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리라!'(요1:30)는-'더하여지는 성서적 축복'이 가득하게 그려지는 새해를 기대하며 살아야하지 않을까요?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지검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치의학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안.내
- 치아이식(임플란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www.rptseast.org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본 신학교는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 (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 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 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 전
1)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2) 성적 우수 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특히 목회와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 후 장학금 지급)
3)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4)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5) 졸업생은 원할 경우에 2년 인턴과정 후, 심사를 거쳐 개척교회 지원함
6)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20 성경의 땅 배움 여행
성경의 땅 이스라엘로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2020년 11월 19일(목)~28일(토) 8박 9일
- 대상: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신학생, 동문회, 신학교에 관심이 있는 분
- 경비: $2,700 (모든 경비 포함) - 마감: 2020년 7월 31일 까지
- 신청: 학감 허윤준 박사 (718-637-1470) / 사무실 (718-463-7163)

2020학년도 봄학기 입학안내(주·야간)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 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 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여 교 역 학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1부
4. 신앙고백서 1부
5. 명함판 사진 2매
6. 입학전형료($30)

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접수마감 : 2020년 1월 24(금) 오후 6시
원서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입 학 시 험 : 2020년 1월 25일(토) 오전 11시, 면접 오후 2시
개강부흥회 : 2020년 1월 27일(월) - 1월 29일(수)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 학감, 교무
143-17 Flanklin Ave. Flushing, NY 11355
학감: 718-637-1470 / 교무: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목자의 묵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중요한 믿음의 선포

필라에서 신학공부를 끝내고 어디서 개척을 해야 하나 기도하다가 대륙횡단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은 것이다. 그래서 목회지를 찾으러 동부의 여러 도시를 거치며 그곳의 한인들의 상황을 돌아보며 LA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LA에서 20일을 머물며 그 곳을 살펴보았다. 이전에 LA에서 5년을 살았기에 개척하기에 좋을지 알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여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인들이 많이 살기는 하는데 너무 여러 지역으로 한인들이 퍼져 살아서 개척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엔 다시 남쪽 길을 택하여 동부 쪽으로 올라오게 되었고 뉴욕까지 오게 되었다. 뉴욕에 들어오니 기도 중 "이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정착을 하고서는 2년간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며 개척할 곳을 위해 기도하다가 베이사이드가 목회 지역으로 마음에 들었다. 그 때 당시 베이사이드는 한인이 별로 없었지만 앞으로 많아질 것이라는 판단이 들게 되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뉴욕에서 발행되는 Whitepages를 3년치 구해서 김씨 성을 가진 분들이 어디로 이사를 하게 되나 살펴보게 되었다. 그 결과 베이사이드로 많이 이사를 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상황을 보니 첫 번째로는 뉴저지로 많이들 이사를 갔고 그 다음이 베이사이드였다. 그래서 그 곳으로 이사를 가고 개척 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베이사이드 지역은 정말 한인이 별로 없는 때였다. 그래서 나는 그때 베이사이드를 다니며 이런 말을 선포하며 다녔다. 이곳엔 한인 마켓이, 저곳엔 한인 식당이, 그리고 저곳엔 미용실과 이발소가, 그리고 이곳에는 한인 닥터스 오피스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다른 곳엔 한인 은행이 들어서게 되기를 기도하였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자 점점 그런 가게들이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되었고, 29년이 지난 지금은 정말 내가 기도하던 대로 모든 것이 들어서며 큰 한인 타운을 이루게 되었다.

내가 그렇게 선포하며 다닌 이유는 성경엔 이런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말이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입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교회가 있는 지역을 바꾸어 주셨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선포는 지금의 우리 교회 부지를 사고 들어 와서도 계속되었다. 우리가 지금의 교회 부지가 있는 곳은 21년 전에는 그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았다. 교회당 주변의 길은 포장 안 된 곳이 많았고, 교회당 앞에 있는 공원은 범죄자들이 우글거리는 공원 같이 보였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그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선포하기를 "우리 교회가 이곳에 들어오면 이곳은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굳게 믿으며 말하였다. 그리고 정말 기적같이 6개월 만에 그 곳의 환경이 바뀌었다.

길이 새롭게 포장되고 공원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동네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결과 이 지역은 베이사이드에서 가장 열악한 곳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바뀐 것이다. 동네에 사는 주민들도 한결 같이 우리교회가 들어와서 동네가 바뀌게 되었다고 우리교회를 향하여 칭송이 자자하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고 그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누구든지 그 말씀대로 실행하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david2lord@hotmail.com

이수용 목사
(한몸교회)

팔복 I : 복 누림의 서막

마태복음 4장 23절-5장 12절

한국의 유명한 고사성어 중에 '새옹지마'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다. 둘 다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정의는 '복이 복이 아니고 화가 화가 아니다'라는 말이다. 이 말은 곧, 세상은 '복에 대한, 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써 이 땅에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3가지로 살펴보자.

1. 복 누림의 바른 정의

마태복음 5장-7장은 기독교의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낸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이다.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이 설교의 핵심은 '팔복'이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의 첫 시작을 '팔복'으로 시작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해 낼 구원자(메시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기에 마태는 앞서 1장-4장에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야임을 족보, 탄생, 마귀의 시험 및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그 뒤로 예수님이 이 땅 공생애 사역의 첫 일성을 외치는데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다.

예수님은 그들의 예상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으로 무엇을 해야 함을 말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소유나 능력이 아니라 '성품'이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기 위해서는 심령의 가난, 온유, 애통... 이 상태, 이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복의 누림'을 이렇게 정의한다. 복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to have)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to be)이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성품이 온전하지 않으면 행복을 누릴 수 없고, 성품이 온전하다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나는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꿈을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꿈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꿈은 단지 우리를 보람되게 만들 뿐이다. 진정한 행복은 내 인생의 꿈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에 있지 않고, 내 삶을 내가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성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이루어 낸 사람보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 왜냐하면 꿈을 이루었을 때는 그 꿈이 이미 '소유'가 되어버렸지만 꿈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은 '성품'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복에 대한 바른 정의가 필요하다. 이 행복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이루어도 잘못된 것이기에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이루지 못하면 못 이루었다는 생각이 나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무리 or 제자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무리'와 '제자'이다(1절). 예수님을 따르지만, 즉,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지만 그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무리'와 '제자'를 이렇게 구분한다. '무리'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고 '제자'는 훈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무리와 제자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열심'이다. 무리이건 제자이건 할 것 없이 이 두 부류 모두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함에는 열정과 열심히 대단하다. 둘 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좇는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리'는 예수님을 좇는 목적이 개인적인 욕구와 만족을 채우기 위함이고 '제자'는 자신의 삶의 방향과 지표가 예수님께로 바뀐 사람들이다.

〈9면으로 계속〉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0.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0)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Exam Subjects

a)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b)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1) OT Exegesis Text : Joel 2:28-32 (2) NT Exegesis Text : 1 Peter 2:1-10
(3) Thesis Topic :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spel and the Law in terms of the Reformed Perspective
(4) Sermon Text : Haggai 1:1-8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i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①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②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SunghoonChoOTExegesisPaper.pdf)
ⓕ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c) Oral Interview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a)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20.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20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b)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c)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4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2-15, 2020).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Exam Date and Place

a) Dates : May 5(Tue)~6(Wed), 2020
b) Place : Eastern Region: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Rev. Seoung Kook Ki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estern Regio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Rev. Won Bae Son)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Accompanying Documents

a)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0.
b)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c)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d)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e)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f)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g) Fee: $10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Miscellaneous Information

a)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5-6, 2020) through Rev. Euihan Jang.
b)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Submit To

Rev. Euihan Jang
Address : 6 Westminster Dr. Londonderry, NH 03053-3436 U.S.A.
Cell : (603) 553-1991 E-mail : euihan@hotmail.com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a)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Jae Hyun Han (831) 920-7043 jhanrev@gmail.com
b)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Euihan Jang (603) 553-1991 euihan@hotmail.com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양수철 목사
서 기 : 한일철 목사
고시부부장 : 한재현 목사
고시부서기 : 장의한 목사

조만간 대부분의 한글학교가 봄 학기를 맞아 개강을 하게 된다. 영사관의 재정적 지원들과 지역별 연합운동의 활발함들이 개별 한글학교에 좋은 동기와 열심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교회에서 운영하는 한글학교에도 강권하며 자녀들을 등록하게 한다.

본 교회는 출석하는 모든 부모들에게 필수적으로 세 가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강조한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악기를 하나씩 배우도록 하라. 태권도를 배워라. 자기 보호와 함께 싸움기술을 가르치는 다른 운동들과 달리 기본 정신을 한국인의 정서가운데 배우기 때문이다. 태권도는 자세와 태도의 기본기를 훈련하는데 최고이다. 세 번째는 반드시 한글학교를 다니게 하여 한글을 언어과정으로 접근하여 배우게 하라고 강조한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한글 교육이다.

한글교육은 사명훈련

한글학교가 오픈되는 토요일 아침이면 가정마다 작은 전쟁이 일어난다. 아이들이 학교로부터 벗어나 유일하게 하루를 쉬고 싶어 하는 시간임에도, 부모들이 사명의 한 부분으로 알고 한글학교 가는 것을 강제하도록 한다. 그런데 매번 등록된 아이들을 보면,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보다는 오히려 한글을 잘 사용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역설적으로, 그런 열의를 가진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순종은 합력해서 아주 좋은 열매를 보게 된다. 의사소통과 신앙교육, 삶의 자세에 대한 것까지 그 열매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교육은 자녀가 원하는 좋은 것만 주는 방목이 아니다. 마땅히 좋은 것을 먼저 보고 먼저 경험한 부모와 선생의 노력으로 되는 유목이다. 짐승도 방목하면, 야생의 약육강식에 의해 생사를 장담하기 어렵다. 방목의 세계에서는 힘이 우선이기에 그러하다. 그러나 집에서 기른 유목한 짐승은 약해도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적절할 때 사람을 보고 짖을 줄도 알고 철이 들어가는 것이다. 흔히 부모들 가운데, 때가 되면 철들겠다고 하지만 그 철이 들기까지 부모의 심장은 시커멓게 될 수밖에 없다. 뒤돌아보면 마땅히 가르쳐야할 때 가르치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다. 누구를 탓하겠는가?

한글교육과 정체성

언어교육, 이민사회에서의 한글교육은 백번을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다. 언어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문화와 역사와 사회적인 행위들 속에서 학습하게 됨으로, 언어를 포장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적 이해를 함께 받아들이게 된다. 예를 들어, 이슬람어를 연구하는 이들을 보면 그 문화에 대해서도 함께 호의적 반응을 한다. 이해하는 만큼 받아들이고 배우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글을 좋아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한국문화에 대단히 호의적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한글교육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깨닫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더불어 그 민족에게 허락된 고유한 사명까지 깨닫게 함으로 역동적인 삶을 추구하게 만들 것이다. 신앙생활에도 사명을 깨닫는 유무에 의해 그 열매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본다. 더 나아가 언어는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특별한 통로가 될 것이다.

한글을 통해 배우는 우리의 특별한 사명은 무엇인가? 한글교육은 단순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라는 기본적인 목표에 머물지 않는다. 멀리 타국에서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하며, 그 소식이 들리게 하며, 생각하게 하고, 마침내 은혜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깨닫게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민 사회에서의 한글 교육은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너무나 소중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교회와 한글교육

한글학교는 영사관의 지원하에 독립적인 교육기관을 통해 운영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민사회의 대부분의 한글학교는 교회에서 운영되는 예가 많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아주 귀한 일이다. 한글교육이 사명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토요일 한글학교 뿐 아니라, 저들의 신앙생활가운데 녹아져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대부분의 아이들의 교제권이 교회이고, 교회를 중심해서 친구관계와 자신들의 관심에 따른 참여그룹들을 확장해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한글교육의 목표는 가장 기본적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넘어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한글교육은 신앙유산을 전수하는 가장 귀중한 첫 걸음이 된다. 그 신앙의 유산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발견하며, 헌신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거의 20년전 미국에서 처음 이민교회를 방문하였다. 대도시의 중형교회였는데, 첫인상을 설명하면 상당히 역동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1부에서 3부까지 예배가 나뉘어져 있어서, 어느 예배라도 들어가게 되면 되었다.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예배에 와서, 자신들이 적응하기 쉬운 영어권 예배로 들어간 후에 예배 후에 부모와 만나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 한 번의 예배가 주일 드리는 예배의 전부였다.

영어권 예배의 사역자는 약간의 한국말을 할 줄 알지만 미국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렇게 자란 2세들 중에는 귀한 은혜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새벽기도와 우리가 가진 독특한 주일신앙의 한국적 DNA와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현상 속에 자녀의 신앙교육에 힘들어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받은 그 인상들이 이후 이민교회를 개척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교회교육을 세워가게 되었다.

한글, 한국말 예배

교회를 개척하면서 자녀들에게 한글교육을 강조하게 되었는데, 한글학교에 출석의무는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토요일 하루만 강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교회예배에도 적용을 하게 되었다. EM예배가 세워지고 사역자가 있음에도, EM은 성인 영어권이 출석하는 교회, 부모님 중에 한분이 미국분이시면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였다. 부모가 한국 사람이면 당연히 EM예배 출석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설교를 받아 적으면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다. 부모들 중에는 아이가 이해가 어려워서 영어권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이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고향 사투리가 힘들다는 투정도 하였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규정이 되다보니, 아이들의 이해하는 것이나 배우는 것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한국말 예배는 한국말로만 이해하고 듣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는 고유한 한국 사람으로서 반드시 품고 배워야 하는 또 다른 가르침이 들어있다.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다. 예를 들면, 자세와 태도의 변화, 그리고 자신과 부모가 함께 말씀을 듣는 목회자에 대한 자세들까지 달라지더라는 것이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못 들은 척해도, 하나님께서 들을 것은 다 듣게 하시더라는 것이다. 한국말 예배 속에는 한국인의 문화와 사상과 무엇보다 부모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운데 하나님이 자손 대를 이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함께 공유하게 된다. 그 속에는 고유한 언어와 함께 주어지는 고유한 사명의 분량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아래서 함께 그 복을 받는 것이다.

엘리트 교육을 한다고, 전인교육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자세가 중요하다. 기본기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신앙의 기본이 되어졌을 때, 기술을 가르쳐도 늦지 않다. 한국어를 가르치지 않고서, 신앙과 삶의 유산을 제대로 넉넉하게 전수할 길이 무엇일까? 혹자는 자녀를 글로벌하게 키우기 원해서, 한국적인 정서를 애써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 착각하며 잊고 있는 것이 있다. 가장 우리다운 것이, 가장 그 민족자체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글로벌하게 되는 것임을 모르는 것이다.

북한선교의 책임

본 한국학교의 교훈은 '개구리가 됩시다'이다.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사는 개구리처럼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복되게 사용하시겠는가? 하는 데서 유래한다. 부모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은, 게다가 부모가 새벽기도하는 한국적 신앙의 DNA를 가진 이라고 할 때,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인지 모른다. 마지막 종말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귀한 영적 이스라엘의 조건이 무엇인가? 마지막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이다. 오늘날 땅끝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 답을 말할 수 있을 것이지만, 최소한 우리 한국민족에게는 북한이 정답이다. 북한의 개방과 지하교회가 밖으로 드러나며, 북한이 복음화 되는 것에 쓰임 받는 것이 땅끝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겠는가?

태평양을 건너 초일류 강대국인 미국에 이민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흩으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서도 저들은 복음을 전하였다면, 미국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복음을 위한 것임을 생각할 때,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미국에서 우리자녀에게 그 사명을 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삶과 자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살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선교지, 북한을 바라보면서 북한에서의 사역과 헌신을 생각한다면 우리 2세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고, 말속에 담겨있는 부모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우리의 민족적인 차별성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말을 가르치는 것은 사명훈련이며 곧 선교훈련이 되는 것이다.

통일한국, 우리자녀

통일 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2세들이 부모세대의 그 언어를 가지고서 활발한 소통을 이루게 될 때 북한에서의 효과적인 복음전파와 장래 민족공동체의 융성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될 줄로 믿는다. 언어를 배우지 못하고, 어떻게 북한선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결국, 한글교육은 부모세대가 노래하던 통일한국을 향한 북한 복음화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다.

어릴 때 김치를 많이 먹던 어른세대들은 아무리 비싼 스테이크를 앞에 두고서도 김치를 찾게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오랜 시간 반복해서 먹어왔기 때문이다. 좋은 것은 뼈속 깊이 새기라는 말이 있듯이, 한글 교육에 몰입해야 한다. 결단하지 않으면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국적불명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 스스로도 정체성의 방황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부모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하는 너희는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럴만한 부모님들의 영적결단을 통한 권세가 있어야 한다. 토요일 아침 사명감을 가지고 깨워야 한다.

davidnje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한글교육 사명훈련

- 한글, 신앙, 선교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과거 1962년도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공립학교에 기도가 금지된 이후로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립학교의 기도하는 권리를 회복시켰다고 하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하버에서 이희은

A: 과거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공부가 시작될 때 아침 조회시간에 교사는 다음과 같이 학생들과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Almighty God, We acknowledge our dependence upon thee(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We beg thy blessing upon us, our parents, our Teachers, our country, Amen(우리의 부모와 선생님과 국가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1년 후인 1962년 뉴욕 주 어느 공립학교에서 전체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학부모 중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결국 한 학부모 단체가 법정에 고소하게 됩니다. 거기에 법원은 기도를 반대하는 소송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도 이에 합세하여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기도 반대 지지를 촉구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뉴욕 주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각 주의 학교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사라지는 결정적인 결과

기도금지 공립학교 내 청소년 문제 만연

를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인지 1965년 6월 25일에 미 대법원 즉 US Supreme court에서는 모든 공립학교가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는 것을 위헌(Unconstituional)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 기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립학교는 성경을 통한 도덕교육과 가치관 교육이 사라지게 되면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수많은 청소년 범죄가 학교에서 생기고 학교에서 폭력, 마약, 성 탈선 등 문제 아이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미국은 그때부터 청교도의 신앙을 포기하고 인본주의 나라로 점점 영적 힘을 상실하면서 나라도 기울기(Decline)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월 16일 "종교 자유의 날(Religious Freedom Day)"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FOX 뉴스는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도할 권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그는 공립학교 내 기도 금지를 '문화전쟁"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리고 크리스마스를 제거하려 했다. 앞으로 이 둘을 다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며 이어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누구도 하나님을 공공의 광장에서 몰아내지 못하게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Be tsy DeVos는 새로운 규칙이 학생들의 기도 권리를 보호한다고 하였고, 백악관 국내정책책임자 조 그로건(Joe Grogan)은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기도 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중국의 뿌누(Punu)

뿌누족은 중국의 55개 공식 소수민족의 하나인 야오족(요, Yao)의 하위 종족이다. 비록 야오족은 서로 다른 다양한 종족들로 이뤄져 언어도 서로 다르지만, 중국의 정부가 이들을 한 종족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야오족 공동체중 하나가 된 것이다.

야오족은 중국의 남부 중앙지역과 남동부 지방의 여러 주들에 살고 있으며, 뿌누족은 특별히 광시성(Guangxi)의 북부 중앙지역에 산다. 비록 그들이 야오족에 속한 종족이지만 그들의 언어인 뿌누어는 미아오어(묘어, Miao)에 더 가깝다.

야오족에 속한 종족들은 오늘날의 장쑤성(Jiangsu)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발원했으며, 점차 광시성(Guangxi)과 중국 남부 지방으로 이주했다. 야오족 역사의 상당부분이 한족(Han Chinese)의 지배아래서 이뤄졌다. 또한 과거 여러 차례 중국정부에 반항했고, 특히 중국 공산주의 혁명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했다.

삶의 모습

대부분 뿌누족은 시골 농부들로 높은 산의 산허리를 잘라 계단을 만들어 쌀을 재배하며 생활한다. 쌀 외에는 옥수수, 고구마, 후추, 호박, 콩 등의 농작물들을 재배한다. 뿌누족은 전통적으로 화전농법을 이용하면서, 자라는 산림을 자르고 불 태워서 경작지를 만들어 농장물의 수확물 들을 증가시켰다. 농업 외에 수렵 또한 뿌누족 삶에서 주요한 부분이다.

뿌누족이 즐기는 음식은 소금에 절인 새요리(picked bird)이다. 깨끗하게 다듬은 새를 소금과 쌀 소맥분가루를 넣어 섞은 후 밀폐된 병에 봉하는 방식으로 만든 요리다. 뿌누족은 또한 쇠고기와 양고기도 절여서 피클로 만든다. "기름기 많은 차(Oily tea)"는 또한 광시성(Guangxi)의 북부에서 즐겨 마신다. 이것은 차잎을 기름에 튀긴 후에 짠 수프와 쌀이나 콩들을 섞어서 뻑뻑하게 끓여서 만든 것이다.

전형적인 뿌누족 집은 목재와 대나무로 만들어지며, 중앙의 거실과 양측에 각 침실이 있어 3개의 방들을 이루고 있다. 어떤 집들은 2층으로 위층에 거실이 있고 1층이나 지하는 마굿간이다.

뿌누족에게 가족은 가장 의미 있는 집단이며 이혼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일반적으로 뿌누족 남성들은 아내가 한명이지만 간혹 둘 이상의 아내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관습상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결혼은 부모님에 의해 정해지지만 오늘날에는 보통 결혼 당사자들에게 맡겨진다. 신랑은 보통 16-17살이고 신부는 일반적으로 3년 또는 4년 연상이다.

신앙

뿌누족의 전통적인 신앙은 조상숭배와 신비의식(exorcism)이 결합된 형태다. 조상숭배는 죽은 선조들의 영혼에게 도움과 보호를 바라는 관습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뿌누족 각 가정마다 조상숭배를 위한 작은 제단을 두며, 또한 귀신이 악한 병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이를 쫓아버리기 위해 신비적인 의식을 행한다.

종교적 신앙은 중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상인 도교와 비슷하다. 즉 여러 잡신들과 초자연적인 존재, 과거의 살았던 영웅들, 천지만물의 영들을 섬기며, 또한 18개 족장을 신으로 추대해서 섬긴다. 조상신 또는 가정의 수호신들은 착한 신이며 숲의 악마, 계곡에 있는 사탄, 도시 악마들은 악한 신들로 여긴다. 1949년 공산주의 출현후 뿌누족 삶에서 종교성이 줄어들었다.

필요로 하는 것들

비록 농업을 통해 뿌누족의 주된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자급자족할 만큼 식량이 충분하지 않다. 허나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에 비한다면 육체의 굶주림은 그리 시급하지 않다.

대부분 뿌누족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했고, 그들 사이에는 극소수의 크리스천들이 존재하고 있다. 성경이 아직 뿌누족의 언어로 번역되지 못했고, 그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라디오방송이나 텔레비전 방송은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국 생명존중 행사에 한국단체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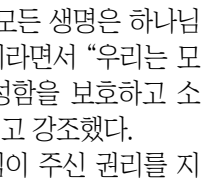
미국 최대의 생명존중 행사인 '마치 포 라이프'(March for life)가 지난 24일 워싱턴DC 백악관 근처 잔디광장인 내셔널몰에서 열렸다. 1974년부터 매년 열리는 행사에선 기독교와 가톨릭 등의 낙태 반대 단체 수십 곳이 연대해 대규모 퍼레이드를 열고 있다. 수만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낙태와 동성애에 맞서 생명보호 운동을 전개하는 이종락 주사랑공동체 목사와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등 한국대표단이 참석해 뜻을 같이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대통령 최초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 13분간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한 메시지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태어났든 태어나지 못했든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중한 선물"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인간의 삶의 위엄과 신성함을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세력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지우고 신앙에 근거한 자선단체를 폐쇄하며, 광장에서 성도들의 자유를 금지하며, 생명의 신성함을 믿는 미국인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의회에서 민주당은 세금으로 낙태를 지원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모두는 그들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고 오랫동안 승리했고, 앞으로도 이길 것"이라고 외치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참석자들은 '말을 못 하게 하는 사람들에 맞서 내 목소리를 내겠다'(I will use my voice for those who cannot speak) '낙태가 종식되도록 기도하라'(Pray to end abortion)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잠31:8) 등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성경 구절을 푯말에 기록한 참가자도 많았다.

영국 웨일스에 부흥 바람



영국 웨일스에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다. 현지 교회들이 연합해 복음 전도에 나서고 있으며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약물에 중독된 청년들이 치유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상은 최근 서울대치순복음교회(한별 목사)가 주최한 '한국 영국 선교포럼'에서 보고됐다. 포럼에 참석한 웨일스 목회자들은 "웨일스의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등 사회와 교회가 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웨일스는 한국교회 역사와도 관련이 깊다. 웨일스는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에 승선했다가 대동강변에서 쪽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의 영적 고향이자 그를 파송한 하노버교회가 있는 곳이다. 또 1904년 모리아교회 이반 로버츠에 의해 성령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다. 당시 웨일스 부흥은 1907년 평양 대부흥에도 영향을 끼쳤다.

줄리안 리처드(코너스톤교회) 목사는 2017년 지역교회 연합체인 '뉴와인'이 일주일간 웨일스 선교를 시행한 결과를 소개했다. 당시 선교 활동은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웨일스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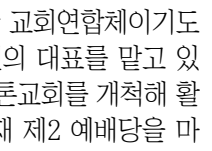
리처드 목사는 "우리는 이 선교 활동을 3년간 지속해왔다"며 "길거리 전도를 통해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기도한 사람이 4418명이었다"며 "선교에 참여한 교회가 119개, 선교 활동이 진행된 장소가 22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웨일스 전역에서 믿는 자가 증가하고 마약 등 약물에 중독됐던 청년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웨일스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다. 웨일스가 기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연합왕국으로 구성돼있다.

리처드 목사가 밝힌 뉴와인은 22개 현지 교단과 700여명의 지역교회 리더들의 네트워크이다. 웨일스 재부흥을 위한 교회연합체이기도 하다. 리처드 목사는 뉴와인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91년 스완지에 코너스톤교회를 개척해 활발히 목회 활동 중이다. 현재 제2 예배당을 마련할 정도로 신자들이 늘고 있다.

폴 프랜시스(글렌우드교회) 목사는 "웨일스는 부흥의 고장이었으나 그동안 전체 인구 2~4% 정도만 교회에 출석했다"며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증가하고 교회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열린 목회자 콘퍼런스에는 500여명이 참석해 기도했다"며 "콘퍼런스에서는 웨일스에 부흥이 올 것이란 기대와 예언적 목소리가 넘쳤다"고 소개했다.

뉴와인은 내년 7월 17일을 특별한 예배와 기도의 날로 정하고 웨일스 국회의사당 바로 옆의 밀레니엄센터에서 열리는 '웨일스 국가 연합 기도 성회'를 준비 중이다. 수천 명의 현지 기독교인 등이 모여 기도할 예정이다. 프랜시스 목사는 "기도성회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한국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우한 폐렴' 가공할 확산 속도…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 환자가 급증하면서 2003년 세계적으로 774명의 사망자를 냈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위력을 넘어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발병지인 후베이성 우한에서 이미 500만명이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잠복기에도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전염성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27일 오후 8시 현재까지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대만에서 2840명의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는 8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루 전보다 확진자는 867명, 사망자는 25명 늘어난 수치다. 의심환자는 3806명 늘어난 5794명으로 집계됐고, 중증환자는 461명으로 늘었다.

특히 환자 증가 속도가 빨라 이대로 가면 37개국에서 8000여명을 감염시켰던 사스 사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한 폐렴 확진자는 지난달 31일 27명에서 지난 11일 41명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 19일부터 급속히 늘어났다. 이어 23일 하루에만 확진자가 259명이나 늘었고 24일 444명, 25일 688명, 26일 867명으로 증가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런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1주일 정도면 사스 사태 당시의 감염자 수를 돌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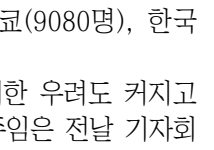
실제 사스 사태 당시 중국 정부는 2002년 11월 처음 감염자가 발생한 뒤 5개월 만인 이듬해 4월 10일에야 사스 발생을 공식 인정했다. 허술한 대응을 지적받았던 사스 사태 당시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8000명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1개월여 만에 3000명 가까운 감염자가 발생한 우한 폐렴의 확산 속도가 훨씬 더 가파르다.

게다가 우한에서는 발병 후 이미 500만명이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저우셴왕 우한 시장은 전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춘제와 전염병 사태로 500여만명이 우한을 떠났고 900만명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우한을 떠난 500만명 중 대부분은 중국 내 주요 도시로 이동했으나 해외로 떠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중국 제일재경망 분석에 따르면 우한 폐렴 발병 후 지난 22일까지 우한에서 해외로 떠난 항공기 승객은 태국이 2만5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1만680명)와 도쿄(9080명), 한국(6430명) 순으로 조사됐다.

우한 폐렴의 전염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마샤오웨이 위건위 주임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사스와 달리 잠복기에도 전염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중위생 전문가인 닐 퍼거슨 영국 임피리얼칼리지 교수는 우한 폐렴 감염자가 이미 1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고, 홍콩대학 신흥전염병국가중점실험실의 관이 주임은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우한 폐렴 감염 규모는 최종적으로 사스보다 10배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국무원은 우한 폐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자 이날 통지를 통해 춘제 연휴를 2월 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각 지역 대학과 전문대학,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다. 상하이 시정부는 여기에 연휴를 1주일 더 늦춰 9일 자정으로 연장하는 강수를 뒀다. 베이징시와 시안시 등은 도시를 넘나드는 버스 운행을 중단시켰다.

전 세계 '우한공포' 비상…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 환자 및 사망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민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유행에 버금가는 질병으로 간주하고 대비하는 것은 물론, 강제조치, 중국과의 접경지역 폐쇄, 중국 방문자에 대한 의무 휴직·휴학 등 각종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관계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대유행병'(pandemic)인 것처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CNN은 26일 CDC 산하 국립면역호흡기질환센터 책임자인 낸시 메소니에 박사가 "(우한 폐렴이) 대유행병인 것처럼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나는 그렇지 않길 계속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CDC는 미국 내에서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유일한 연구소다.

메소니에 박사는 "CDC는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환자가 감염되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그럴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마샤오웨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은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정보가 제한돼 있다면서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달리 잠복기에도 전염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7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을 법률에 따라 강제입원까지 할 수 있는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일본 NHK방송,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28일 열리는 각의(국무회의)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감염증법'에 따른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염자에 대한 입원 조치와 공비(국가 및 공공단체 비용)로 적절한 의료 등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지정감염증으로 지정될 경우 환자에 대한 강제조치가 가능하다. 환자에게 감염증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권고하고, 환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 입원도 가능하다. 또 환자에게 일정 기간 일을 쉬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몽골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른 우려로 중국과 접경지대를 폐쇄했다고 몽골 통신하 몬차메 등이 보도했다. 몽골은 아직까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남쪽으로 중국과 접하고 있어 전파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전 차단을 위해 몽골 정부는 중국 접경지대에서 차량과 도보 이동을 금지시켰다. 또 이날부터 일주일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dpa통신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병지인 중국 우한에 몽골 유학생 31명이 살고 있고, 이날 중 몽골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중국에 다녀온 학생이나 의료시설 종사자 등에게 2주간 의무휴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스트레이츠타임스, CNN 등은 싱가포르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TF는 설 연휴에 중국을 방문한 학생 및 미취학 아동 교육기관을 포함한 학교 근로자, 의료시설 및 노인 돌봄 시설 근로자들은 건강 상황과 여행 이력 진술서를 해당 시설에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에서 돌아오자마자 14일간 의무 휴가를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에 나오지 않는 기간에는 가정학습이 이뤄질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호주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을 '여행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중국에서 호주로 도착하는 모든 항공편 승객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과 대처 방법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적의 적은 친구' 이스라엘, 사우디 방문 첫 허용

이스라엘 정부가 자국민의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여행을 처음으로 허용했다. AP통신 등은 26일 아르예 데리 이스라엘 내무장관이 성명을 통해 "종교적인 이유와 투자·회의와 같은 사업상 이유로 최대 9일 간 사우디 여행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사우디 등 걸프 지역 이슬람 국가들과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불가침조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이은 유화적 제스처다.

그동안 이스라엘 국적자가 사우디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외교관이 쓰는 관용 여권을 사용하거나 특별 허가가 필요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에 무슬림인 이스라엘 국적자가 성지 순례를 위해 사우디의 이슬람 성지 메카와 메디나에 가거나 최장 9일 이내로 사우디 측에서 초청받아 사업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우디 여행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90. 임창영(1909-1996)

1936년부터 5년간 뉴욕한인교회 담임후 프린스턴대 박사학위 취득
뉴욕주립대 교수하다 귀국, 유엔한국대사 역임 정치/통일운동 관여

임창영은 1909년 10월 30일 황해도 은율군 구월리에서 출생했다. 그는 1930년에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본교 교장인 조지 S. 맥큔(윤상온) 선교사의 주선으로 졸업한 그해 6월에 도미하여 펜실베이니아 주 이스턴에 위치한 라파이에트대학에 입학했다. 1934년 본 대학을 졸업한 그는 본 대학에서 가까운 버크넬대학에 입학하여 한 학기를 마친 후 장학금을 받아 뉴욕시에 있는 뉴욕신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이곳에서 '동양인 기독교 학생연맹'에 참가하여 1936년에는 회장에 당선되었다. 이 연맹은 김활란과 허진업 그리고 장덕수가 참여했던 단체다.

뉴욕한인교회

뉴욕신학교 2학년이던 1936년에 미국 북감리교 뉴욕 지방감리사 코일 목사의 주선으로 임창영은 영문도 모른 채 설교를 하게 되었다. 그에 따르면 "일요일에 교회에 갔지요. 현관에 들어서니 교회의 원로이신 안정수 선생께서 맞아주시며 '교인들이 베이비(baby)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시며 예배실로 인도하시더군요. 10여 명 교인 앞에 절을 하면서 '저는 베이비입니다. 잘 길러주십시오' 했더니 뉴욕에서 제일 연로하신 홍 부인이 '참, 몇 해 전 유(you)가 잠뱅이 입고 긴 스타킹 신고 교회에 들어올 때는 정말 베이비 같았는데, 어느새 목사가 됐어!' 하시어 좌중이 다 웃으며 담화하는 동안 10여인의 교우들이 다 들어와서 톱톱히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해 1936년에 임창영이 본 교회 윤병구 목사를 이어 제4대 담임목사가 되었다. 그가 26세였음에도 탁월한 영어 실력이나 활동력이 목사가 되기에 남달랐던 점이 강점이었다면 당시 경제공황이어서 임시목사로는 적격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목사 봉급은 뉴욕지방 감리회 뉴욕시 전도국이 보조한 연간 500달러와 한인교회의 연간 100달러를 합해 총 600달러였으니 매월 50달러였던 셈이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김형린, 안승화, 남궁염, 조 극, 이재희, 이옥성 등 교회 이사원 6인을 증선하였다.

임창영의 취임식은 그해 9월 16일에 있었다. 안정수로부터 교인들이 사정이 있어 많이 못 나올 것이라는 귀띔을 받은 임 목사는 생각 끝에 뉴욕신학교 동료 학생들을 모두 초대했으니 취임예배는 대성황이었다. 한인 교인은 별로 없고 외국인 학교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그는 한국어로 준비했던 설교를 영어로 하였다.

임창영이 부임한 지 한 달이 못 될 즈음에 독일 베를린에서 올림픽경기가 있었다. 이곳에서 감격스럽게도 한국의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하였다. 한국 언론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다투어 보도했는데 동아일보가 손기정 선수의 셔츠에 부착된 일본기를 삭제하고 중앙일보가 불순한 기사를 썼다 해서 일본 당국은 이 두 신문사를 강제로 폐간시켰다. 이에 1936년 10월 16일 임창영은 뉴욕의 한인들을 규합하여 교인들을 이끌고 뉴욕 일본영사관 앞에 나가 항의 시위를 벌였다.

임창영의 모교인 숭실전문학교 교장 윤산온 선교사가 1937년 5월에 뉴욕을 내방했다. 그의 추천으로 유학을 온 임창영은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임창영은 은사이신 윤산온 선교사를 그의 강대상에 모시고 설교를 들었다. 윤산온 선교사는 그날 일반 교우에게 많은 부흥의 정신을 일깨웠다. 오후에는 근화회 회장인 박리근 부인의 주선으로 50여 명의 동포가 모인 가운데 융숭한 만찬으로 그를 모셨다.

1937년 한인 두 명이 자살했다. 뉴욕에 재류하던 김원준의 장녀 헬렌이 백인과 결혼하여 출가하였는데 1937년 5월에 돌연 자살하였고, 다음 달에는 이창수가 모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을 불복하여 공소하였는데 순회 재판소에서 다시 심문을 받던 중 너무 억울하여 세상을 비관하고 돌연히 창밖으로 뛰어나가 8층에서 떨어져 자살했다. 이러한 현장에 임창영이 배석하여 그의 영어 실력으로 교인을 돌보는 목회를 감당했다.

임창영은 교포를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지 뛰어갔고 어디든 함께했다. 그는 훗날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학생들이 학업을 필하면 귀국해야 했는데 그 법을 엄중히 실시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일제 탄압이 심한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아서 학교를 필한 후 숨어 지내는 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들이 체포당할 경우, 석방주선이 제 책임이었던 바, 성과를 거둘 때는 기쁨을 형언할 수 없었지만, 백방이 무효로 쫓겨 돌아가는 광경을 볼 때는 참으로 눈물겨웠습니다. 30년대 말기까지 경제난이 없지 않아서 교회에는 방마다 무직자들로 만원이었고, 제가 목회할 때는 유달리 병자, 사망자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환자를 돌보고, 입원시키고 사망자들을 위해 장비를 모금하여 안장해야 했으며 또 하나는 교회에 유숙하는 무직자들에게 커피, 도넛이라도 대접하는 것이었는데 제 월급이 2, 3주가 지나면 다 없어졌으므로 매달 하순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중일 전쟁이 일어난 후 뉴욕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원동 시국이 비상하고 중대한 점을 깨닫고 이어 150달러를 모금하여 국민총회로 보내 남경정부로 보냈다. 1937년 11월에 이러한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뉴욕 한인들이 연합 중국 후원회를 조직했다. 상무위원에 임창영 뿐만 아니라 이덕환, 안정수, 황보익준, 안승화, 조극, 전경준, 변민평 등이 선임되었다. 이들은 미국인의 원동에 대한 관심이 깊은 때에 한국의 사정을 선전할 뿐만 하니라 중국 항일전쟁의 후원과 일화배척 선전을 조직적으로 실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미국 피츠버그에 모이는 미국인 평화단체 연합대회에 현피터를 대표로 파견하였는가 하면 이듬해 2월에는 1백 달러를 장개석 부인에게 보냈다.

1938년 3월 1일 하오 8시 뉴욕한인교회에서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삼일절 기념식이 있었다. 이날 김형린의 사회로 일동이 애국가를 부른 후 임창영이 기도를 담당했다. 이후 사회자의 취지 설명, 이종영과 윤영희의 국기 게양식, 한용규의 피리 독주, 오대도의 독립선언서 낭독, 김또리스와 김혜은의 이중창, 허진업의 연설, 김영옥의 바이올린 독주, 조 극의 임시정부에 대한 보고, 기념금 수합, 박리근의 독창 그리고 만세 삼창을 한 후 폐회했다.

1938년 3월 20일 주일에 뉴욕한인교회 창립 제17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내외국 인사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파리스 스트릿에 있는 미국인 크라이스트교회에서 여러 가지 순서와 음악으로 성황을 이루었고, 기념식 후 다과회가 있었으니 임창영의 수고를 짐작할 수 있다.

창립 제17주년 기념식 2개월 후인 5월 13일 저녁에 뉴욕한인교회에서 음악회가 있었다. 예배당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뵨 교회 부인회가 주선한 행사였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광준의 피아노 독주와 최승희와 안필승의 강연도 있었고, 활동사진도 있었다. 연전에 미국 북장로교의 파송으로 한국과 중국에 갔던 밀러 박사가 찍은 것으로 귀중한 한국 풍속 사진 2권과 중국 북경 실사 1권의 활동사진을 보여주었다.

1938년 8월 뉴욕한인교회 간사였던 오대도가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였는데 그를 대신하여 홍태호가 피선되었다. 뉴욕한인교회는 재류 한인의 공동 집회소이자 이곳을 오가는 동포의 연락기관으로 한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었다. 그달 16일부터 시무하는 홍태호는 뉴욕에 오랫동안 거주하여 동포의 사정을 잘 알므로 일반이 그의 취임을 환영하였다.

1939년 새해를 맞아 교인의 사업에 희망이 있었다. 김형진의 차우멘 도매업은 작년보다 커졌고, 황보익준의 찹수이 사업은 장래가 매우 유망했고, 안정수의 제조업은 그해 5월의 세계 박람회에 그 제조품이 장차 우리의 상품을 대표하여 진열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봉수의 인상 제조업은 백인상업계의 대환영을 받았고, 대학에서 공부하는 서상복은 동양 잡화상점을 열었고, 김 경은 조만간에 시내에 음식점을 열 계획을 했다. 이들 사업을 위하여 임창영은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다.

그해 10월 29일 주일 하오 3시에 신임 감리사 피어슨 박사를 환영하는 예배가 있었다. 남녀 교인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강대상에 선 피어슨 감독은 세계적으로 도탄을 느끼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평화로운 말씀으로 일반의 신앙을 재촉하였다. 이날 유승기 부인과 간사 홍태호에게 세례를 주고 아울러 성만찬식을 인도했다. 그리고 그날 6시에는 동 교회 식당에서 신임감리사 환영 만찬회가 있었는데 뉴욕 선교부 재정 집행위원장 뉴월 박사와 동 부인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 민덕순의 독창에 듣는 이가 다 기뻐하였고, 박리근이 보여준 흉내는 일반이 웃다가 허리를 끊을 뻔하였다. 이날 세례를 받은 홍태호가 환갑을 맞아 그 부인이 마련한 음식에 모든 이가 감사했다.

그해 11월 19일 하오 8시 30분에 숭실대학 졸업생 주최로 뉴욕한인교회에서 평양신학교 교장 사무엘 마펫(마포삼열) 선교사의 추도회가 있었다. 내외국인 인사 40여 명 중에 박사의 두 아들과 남동생이 참여하였고, 한인으로는 10여 명의 숭실대학 졸업생이 참여하였는데 안승화는 워싱턴에서 차로 5시간 걸리는 거리를 마다치 않고 왔다.

1940년 1월 29일에 임창영이 결혼한다. 신한민보는 "뉴욕 한인사회의 드문 성황"이라고 당시의 결혼식을 소개했다. 그의 결혼 한 달 후인 2월 25일에 그가 한경희와 김덕춘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으니 주례자 임창영이 총각이 아니었으니 다행이었다.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제일 큰 이발소를 경영하였던 한경희는 그달 오후 5시에 송재학의 사택에서 김덕춘과 백년가약을 맺었다. 6시에 송 씨 내외가 신혼부부를 위하여 중국인 식당 연화관에 대연을 배설한 가운데 내빈 30여 명이 참여하여 신혼부부를 축복하였다.

중경에 있던 한국 임시정부가 일본에 선전포고한 지 약 3주 후인 1942년 1월 4일에 미주 동부 대한부인회가 뉴욕한인교회에서 조직되었다. 이 명칭을 만드는 과정에서 임창영이 '대한'이라는 용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독립과 조선에 대한 선정을 목표로 적십자사를 통해 성금을 모아 전달하기로 하였다. 회원들의 연간회비는 2달러로 책정하였는데 창립한 지 한 달여 만에 144.50달러를 모아 적십자사 뉴욕지부에 전달했다.

1941년 8월에 임창영은 교회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교인들의 만류로 감리교 연회가 열리는 이듬해 1942년 5월까지 사임을 미루고, 프린스턴대학원의 입학을 계기로 뉴욕한인교회를 떠났다. 이로써 그의 목회는 1936년부터 1941년까지 5년간이었다.

임창영은 1946년 프린스턴대학원에서 헌법정치학으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뉴욕주립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한국으로 귀국한 후 1960년 유엔주재 한국대사를 역임하였고, 이후 그는 국내정치와 통일운동에 깊이 관여하다가 1996년 1월 25일에 향년 87세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소그룹모임: 오전 12:40
새 벽 기 도 회: 오전 5:30
수 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 요 기 도 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 회: 오전 6:00
(화-토)
Tel.(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cpcofny.org, Tel.(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347)513-1351 ,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8:30
영어예배: 오후 1:00
Tel.(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www.kap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Tel.(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11)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제 4권 어거스틴(Aurelius Augustinus)의 "고백록"(1)

전체 기독교에 남긴 어거스틴의 공적과 공헌은 가히 기념비적 '고백록' 통해 깊은 회개의 체험할 수 있다면 가장 가치 있어

들어가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시점에선가 한 번은 인생을 돌이켜보며 참회(懺悔)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시간은 그동안 자신을 사로 잡아왔던 주변의 시선이나 평판을 의식하지 않고 가장 처절한 자기 성찰의 시간외 될 것이다. 물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과정을 통과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고백에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이 책을 쓰도록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개 기도를 통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독자들에게 알려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자는 그의 의도대로 고백록은 철학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던 많은 지성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오랜 세월 진리를 찾아 방황하던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육체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해 고민하던 사람들도 이 책을 통해 위로를 받고 또한 정욕을 이길 구체적인 방법을 인지하게 되었다.

기독교 역사상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고전 가운데 한 권으로 꼽히는 책이기에 우리는 이 책의 내용과 깊이에 익숙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을 통해 깊은 회개의 체험을 할 수 있다면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책으로 독자들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어거스틴(354-430)은 어떤 인물인가? 그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교부, 철학자, 신학자, 감독, 역사가, 수사학자, 교회치리자의 별명들을 가지고 있다. 그는 중세뿐 아니라, 종교개혁, 그리고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 계속해서 영향을 끼쳐온 사람이다. 그는 목회를 하면서도 수많은 책들을 저술하였다.

그의 저서들은 117권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총론을 중심으로 한 '펠라기우스주의 반박론', 삼위일체론을 중심으로 한 '아리우스주의 반박론', 신흥세력으로 부각되던 이교주의자들에 대한 논박인 '신이교주의 반박론', 신앙핸드북 등은 기독교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독교 사상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 책들을 읽어보면 신앙의 본질을 정확히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고백록'은 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 중의 하나이다.

틸리히(P. Tillich)는 "그는 자신 이후 천년 동안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라고 하였고, 윌리암스(D. Williams)는 "서양 신학사는 어거스틴에 대한 계속적인 주(註)밖에 안된다"라고 평가할 정도다. 어거스틴이 끼친 불가피한 시대적인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가 끼친 공로와 선한 영향들 중의 하나인 고백록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어거스틴(Augustine, AD 354- 430)의 생애

어거스틴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그의 저서인 '고백록'(Confessions)과 제자 포시디우스가 쓴 전기를 통해 자세히 알려져 있다. 어거스틴이 72세에 쓴 자전적 평가이며 많은 작품에 대한 요약인 '성찰록'(Retractions)에서도 그의 삶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아버지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 타가스테에서 이교도였으나, 신실한 기독교신자인 아내 모니카의 영향을 받아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성공과 출세를 위해 어거스틴을 교육시켰다. 그는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잠시 학업을 중단했지만 370년 고향 유지의 도움을 받아 고향을 떠나 로마, 카르타고 등지에서 수사학을 공부했다. 그런 가운데 카르타고에서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의 글 '호르텐시우스'를 읽고 철학에 심취하게 된다. 그는 재산이나 명성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철학에 매료된 그에게 기독교신앙은 '문화인'이 받아들이기에는 비철학적인 것으로 비쳐졌다.

그래서 우연히 마니교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이원론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명확하게 나눌 수 있게 하는 마니교에 쉽게 빠져 들었다. 하지만 마니교에 대한 열정도 그에게 오래 가지 않았다. 그가 품고 있었던 '세상에 가득한 악'에 대한 의문에 대해 대답을 주기에는 마니교의 이론적 체계가 빈약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니교를 떠나게 되고, 28세가 되던 해에 카르타고를 떠나 로마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밀라노로 간다. 그 이듬해 그는 당시 밀라노 근방에서 가장 뛰어난 성직자였던 암브로시우스(Ambrosius, 339-397)감독을 만난다. 그의 설교를 듣게 된 어거스틴은 그의 지혜와 지식에 몰입하게 되었고, 점차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벗어 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암브로시우스에게 빠져든 그는 그의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던 "악"에 대한 의문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그 당시 유행하던 신플라톤주의 저작들을 읽으며 기독교 사상에 대해 점차 깊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밀라노의 정원을 거닐던 그는 아이들이 정원에서 놀며 노래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집어 들고 읽어라, 집어 들고 읽어라(Tolle lege, tolle lege)" 그 목소리에 이끌려 그는 가까이 있던 성서를 들고 읽었다. 그 때 펼쳐진 성경은 바로 로마서 13장 13-14절이었다.

"그 말소리가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계속 반복되었던 말은 '그것을 집어 들고 읽어라, 그것을 집어 들고 읽어라'라는 후렴처럼 반복되는 노래였습니다. 나는 곧 눈물을 그치고 안색을 고치어 어린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할 때 저런 노래를 부르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전에 그런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성경을 펴서 첫 눈에 들어온 곳을 읽어 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그는 기독교에 대한 확신을 얻었고, 드디어 32세에 신앙의 길을 걷게 된다. 그 후 43세에 집필을 시작하여 46세에 집필을 완료한(AD 397-401) 그의 책이 고백록이다. 그 후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기도하고 사색하는 공동체생활을 하기 시작한다. 391년 봄, 카르타고 다음가는 도시인 힙포교회의 간청으로 힙포교회의 감독이 되고 그로부터 4년 뒤 주교가 되었다. 그 후 그는 76세로 삶을 마칠 때까지 수많은 철학, 신학, 그리고 논문과 같은 무게를 가진 218통의 편지, 500권 이상의 설교집을 남겼다.

"어거스틴 이전까지의 모든 신학과 사상이 어거스틴에게 흘러 들어왔으며 어거스틴을 통해 후대로 흘러 나갔다"라는 표현이 생겨날 정도로 전체 기독교에 남긴 그의 공적과 공헌은 가히 기념비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younsuklee@hotmail.com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경청은 사랑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셀라)"(시3:4).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열심히 들으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최고의 표현이지요.

경청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경청의 왕,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경청하심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분입니다.

이렇듯 경청은 신뢰를 얻고 친밀감을 쌓는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집중하여 들어주는 경청은 사랑이 되어 관계 속에 흘러갑니다. 부모가 경청해 줄 때 자녀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안정감을 갖지요. 남편이 아내의 말에 경청해 줄 때 아내는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을 느낍니다. 경청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지요.

경청의 성품을 키우는 성품대화법

경청의 좋은 성품을 가정에서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우리 경청하자!"라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경청의 성품이 익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성품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요. 경청을 잘하려면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정에서 날마다 연습해 보세요.

첫째, 경청의 정의를 정확하게 외워보세요.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머릿속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지식이 깨달음이 되어 변화를 일으킵니다.

둘째, 말하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세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경청의 시작입니다. 경청할 때는 눈을 마주치면서 집중하고 있음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셋째, 고개를 끄떡이며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세요.

넷째,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바로 질문합니다. 모르는 것은 질문하는 것이 좋은 경청의 태도입니다.

다섯째, 경청하는 귀, 경청하는 입, 경청하는 손과 발을 연습해 보세요.

경청은 온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좋은나무성품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성품을 재미있고 행복한 경험이 되도록 가르칩니다. 말로 가르치기보다 제스처와 함께 재미있는 억양을 넣어 가르치면 아이들이 좋은 성품을 더 잘 배우지요. "귀는 쫑긋 종긋, 눈은 반짝반짝, 입은 예쁘게, 내 손과 발은 경청"하고 말하면서 동작을 만들어 재미있게 아이들과 연습하면 행복한 생각과 감정으로 경청의 성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입은 예쁘게 다물고 손과 발을 경청하는 자세로 지키는 경청의 태도를 가정에서부터 가르치세요. 경청은 사랑입니다.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소그룹모임: 오전 12:40
새 벽 기 도 회: 오전 5:30
수 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 요 기 도 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 회: 오전 6:00 (화-토)
Tel.(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cpcofny.org, Tel.(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347)513-1351 ,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8:30
영어예배: 오후 1:00
Tel.(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www.kap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월-금), 오전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Tel.(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목회서신

믿음의 근원

여승훈 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나무의 근원은 뿌리에 있다. 뿌리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나무의 생명력이 결정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원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안'에 두어야 한다. 나무의 생명력이 뿌리에 의하여 보존되고 강화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안'에 의하여 믿음이 유지되고 강화되는 것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다. 그리스도안에 있는 믿음의 뿌리중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진 믿음이 아니면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기 곤란한 것이다.

믿음에는 언제나 대상이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받을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특별히 죽음 앞에서 섰을 때 구분이 된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여전히 신뢰받을만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상시에 아무리 신뢰받을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음 앞에 섰을 때 신뢰 받을만한 가치를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람들이 평상시에 신뢰받을만한 가치로 여기는 대상들에 대하여 생각해보라. 첫째, 돈이다. 사람들은 '돈'에 대하여 거의 절대적인 신뢰의 가치를 부여한다. '돈'이 가정의 행복과 인생의 행복을 판가름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부자가 간암말기에 가진 돈을 투자하여 세계에서 제일가는 암 센터 병원에 입원을 하여서 최고의 간암 전문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았었다.

그는 치료를 받은 가운데 그가 가진 돈으로 선택한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의사가 자신의 간암을 고쳐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치료 받기 시작한지 몇 달이 되지 못하여 죽고 말았다. 그가 믿고 신뢰했던 그 많은 돈은 그를 죽음으로 부터 건져줄 수가 없었다. 돈은 결코 사람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젊은 날에 대학교수를 지내며 매우 수준 높은 지성인의 삶을 살았던 어떤 70대 중반의 여자 분이 병원으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고 양로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타임지 신문을 가져다드리며 읽으시라고 권해드리면 손사래를 치면서 아무 소용없다는 말씀 하시고 거절을 하셨다고 한다. 왜 그분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 그분이 가진 지식과 지성은 그분을 죽음으로부터 건져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지성을 자랑하지만 결코 신뢰해야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사랑하는 배우자는 어떤가? 부부금실이 좋은 부부들은 서로를 신뢰하는 신뢰도가 매우 높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그 어떤 묘수도 제공해주지 못한다. 그저 배우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다. 따라서 사랑하는 배우자도 신뢰해야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죽음 앞에서도 신뢰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만나고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돈과 지식과 지성과 배우자를 믿고 살다가 죽음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는 인생의 허망함으로 인하여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죽음 앞에서도 신뢰할만한 믿음의 대상을 만나고 믿는 것은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다. 그리스도안에 있는 십자가 복음은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신뢰할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당신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을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덮어 주시는 덮개가 되어 주신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의 의가 당신에게 전가(Imputation of Righteousness)되어서 당신의 의로운 옷이 되고 덮개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당신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당신이 의인이 되고 죽음을 너머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죽음 앞에서도 신뢰받을만한 가치를 발견하는 곳은 오직 그리스도안에 있는 십자가 복음이다.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서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라. 당신 안에 있는 죄는 시간만 나면 당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 하였다고 자동적으로 오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매일 아침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하룻길을 걸어가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룻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나날을 꿈꾸어 보라.

드림교회에서 열린 연합감리교회 전도특별집회 첫날 집회에서 유성국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다시 복음으로" 주제

연합감리교회 전도특별집회, 강사 유성국 목사

연합감리교회 가주태평양연회 한인교회연합회(코리언코커스, 회장 김낙인 목사)가 주최한 전도특별집회가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22일부터 26일까지 열렸다.

22일 저녁 7시30분 드림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열린 집회는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나' 저자 유성국 목사(제일회중교회 설교)가 강사로 나서 강의했다.

유성국 목사는 "전도의 단계는 1. 전도는 마음이다. 2. vip를 찾아야 한다. vip는 내가 아는 모든 불신자들이다. 3. 하나님께서 허락한 영혼을 놓고 최소한 하루에 한번정도 기도 한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쓰임 받을 뿐이다. 4. 관계를 맺는 것 내가 가장 잘하는 것 가지고 5. 나를 좋아하면 내가 믿는 예수를 믿게 돼있다. 복음전하는 것 6. 신앙생활 같이하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정착시키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전도특별집회는 23일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김낙인 목사), 24일 로스펠리즈교회(신병옥 목사), 25일 밸리연합감리교회(담임 류재덕 목사), 26일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현 목사)에서 각각 열렸다.

〈박준호 기자〉

제10회 미주성경적 상담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분노장애 해결을 위한 성경적 상담'

제10회 미주성경적상담컨퍼런스, 주강사 전형준 교수

성경적상담학회(회장 전형준 교수)가 주최하고 성경적상담학회 미주지회(회장 안임숙 전도사)가 주관한 제10회 미주성경적상담컨퍼선스가 '분노장애 해결을 위한 성경적 상담'이라는 주제로 20일부터 25일까지 월드미션대학교 OC캠퍼스에서 열렸다.

23일 오후 이번 컨퍼런스의 주강사인 전형준 교수가 '노인의 분노와 성경적 상담'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전형준 교수는 "노인이란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이라 설명했다.

전 교수는 "노년기 특성으로는 우울증 증가, 내향성 및 수동성의 증가, 성역할 지각 변화, 경직성의 증가, 조심성의 증가를 들 수 있다"며 "노년기의 분노의 원인으로는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적 부적응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쓴뿌리를 제거해야 한다 △분노에는 시간제한이 있음을 보게 해야 한다 △분노로부터 마음을 지키도록 상담해야 한다 △벗어야 할 것이 있음을 말해야 한다 △분노를 극복하는 길은 용서임을 알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댄 패터스 박사(가정상담전문가), 김경준 박사(월드미션대학교 교수), 김승원 목사(병천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서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햇불선교센터 주최 신년축복각성성회에서 참석자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우리 기도로 열방이 복음화 되길"

햇불선교센터 주최 신년축복각성성회

햇불선교센터(원장 정희욱 목사) 주최 신년축복각성성회가 25일 오후 2시 아름다운교회(담임 이봉하 목사)에서 열렸다.

정희욱 목사는 "이번 성회에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로 인해 열방이 복음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욱 목사, 장규대 목사, 양우철 목사 인도로 시작된 열방 중보기도회는 아프리카 잠비아, 케냐, 부룬디, 탄자니아, 아시아 일본, 베트남, 중국, 필리핀, 미얀마, 태국,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 중남미 멕시코, 브라질,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페루, 도미니카, 러시아, 몰도바, 미국, 한국, 북한 등을 위해 그리고 각 지역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기도회 전 열린 1부 경배와 말씀시간은 이봉하 목사가 감사의 말씀을 전했으며 햇불찬양팀의 찬양인도, 양우철 목사 기도, 이영화 사모 특송, 장영출 목사가 '생명의 성령의 법'(롬 8:1-2)이라는 제목의 설교, 정희욱 목사 축복기도로 이어졌다.

〈박준호 기자〉

GMAN 대학교 김정한 선교사는 KWMA 2019 선교현황을 발표했다.

2019년 해외선교사 파송 46명

GMAN대학교 KWMA 발표 공개

2019년 해외선교사 파송이 46명으로 집계됐다.

GMAN대학교 강의가 열린 22일 오후 2시 GMAN 컨퍼런스룸에서 김정한 선교사(KWMO 대표)는 '황금기 평신도 전문인 선교학' 강의시간에 KWMA(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발표한 2019년도 해외선교사 파송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김 선교사는 "한국교회의 해외선교사 파송현황을 보면 2007년 2,801명, 2008년 1,716명, 2009년 1,427명이었지만 2013년 1,003명으로 대폭 감소하더니 2014년 932명으로 1000명이하로 내려갔다"며 "지난 2016년에는 파송된 선교사가 0명이었지만 2017년 231명, 2018년 537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는 46명으로 다시 줄어들었다"고 언급했다.

김 선교사는 "지난 1977년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1,047달러였다. 2006년에는 2만974달러였고 2018년에는 3만2천달러였다"며 "개인소득은 늘어났지만 교회예산은 건축에 치중하게 됐다"며 교회의 사역방향 조정으로 선교사 파송이 줄어들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한국교회의 선교흐름은 55-71년 외국선교사에 의한 개인동원, 72-88년 소수 헌신자들에 의한 교회동원, 89-99년 신학생들 중심의 관계동원, 00-10년 청년세대 중심의 단기선교, 11-20년 은퇴한 황금기세대에 의한 전문인 동원"이라 소개했으며 "대한민국 개신교회는 출석교인이 1000만명이며 북미주는 한인 71%가 교회출석하고 있다. 다만 60%가 60세 이상"이라 언급하고 "선교사 고령시대가 시작됐다. 다만 선교사의 고령화는 새로운 약진세대라는 의미가 있다. 고령화 인구가 할 수 있는 맞춤선교를 해야 하며 이에 맞는 방법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중남부 여선교회 세미나

연합감리교회 중남부여선교회 세미나가 2월 7일(금)과 8일(토) 양일간 Omni Dallas Hotel Park West(1590 Lyndon B Johnson Fwy, Dallas, TX)에서 열린다. 강사는 백승린 목사(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이며 등록비는 120달러(호텔1박, 금요일 저녁식사, 토요일 아침식사), 60달러(금요일 저녁식사, 토요일 아침식사)다.

▲문의: (469)855-7857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자기의 열심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기도 많이 해서, 헌금 많이 해서, 성경 많이 읽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은 복이 아니다. 그것은 대가(price)이다. 대가는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복음은 방향의 전환이다. 어떤 종교적 열심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방향의 전환이다. 신앙의 수준에 따라 그 길을 천천히 가거나 빨리 갈 수 있다. 다만, 방향이 바뀌어 있으면 된다.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다. 만일 이것이 바뀌지 않은 채로 내가 열심을 낸다면 반드시 실망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의 정의와 다르다. 성경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주리는 것이 옳은 길이요. 우리가 가야할 복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진지한 질문이 필요할 때이다.

3. 모세의 산 vs. 팔복의 산

이 '팔복의 산'은 상징적으로 '모세의 산'과 비교되는 산이다. 모세가 12지파 사람들을 이끌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 그 계명은 오랫동안 우리를 족쇄에 묶고, 절망과 좌절을 만들어냈다. 그것이 모세의 산이다. 반면에 팔복의 산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사 새 계명이 선포된 산이다. 그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다. 우리는 우리를 옭아 매였던 율법의 족쇄에서 더 이상 노예 되지 않고 풀려나게 되었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다.

예전의 모세의 산은 백성들이 오르지도 못했다. 왜냐하면 그 산을 밟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팔복의 산은 제자들이 올랐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직접 듣고 있다. 무슨 뜻인가? 이 말은 곧, 이제 예전에 율법으로 인하여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로 놓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시내산으로 상징되는 '율법의 저주'와 팔복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이 은혜' 이 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서 놓임을 받는,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은 그 엄청난 선언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은혜이다. 그들의 행위와 공로와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준비해 놓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나눔 질문

1.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을 나누어 보라.
2. 내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의 복의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나는 어떤 복을 받고 싶은가?
3. 내가 성경이 말하는 성품으로 바뀌어진 눈으로 본다면, 지금 내게 있어 제일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4. 나는 '무리'인가? 혹은 '제자'인가?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내 인생의 방향은 무엇이었는가? 그 길로 계속 가게 되면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6. 내가 이미 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가? 가장 크게 받은 복은 무엇인가?
7. 내가 이미 받은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동부교계 게시판

east

뉴욕목사회 금식성회

뉴욕목사회(회장 이준성 목사)가 주최하는 금식성회가 3월 9일(월)부터 11일(수) 뉴저지 버나스빌(321 Mine Brook Rd,. Bernardsville)에서 열린다.

▲문의: (718)762-3247 총무 마바울 목사

뉴욕선교로교회 설립감사예배

뉴욕선교로교회 설립감사예배가 2월 2일(주일) 오후 5시 본 교회당(67-02 Woodside Ave, Woodside, NY 11377)에서 열린다. 공동담임 김경수 목사, 박병섭 목사.

▲문의: (718)490-6316

담임목사 청빙

오하이오 에슈타뷸라 지역에 소재한 에쉬타뷸라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지원자격은 정규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안수 받은 목회경험자로 미국거주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한국어와 영어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본인 및 가족소개서(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포함), 최종학위 증명서 및 목사안수증명서 각 1부(사본),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동영상 2회분, 추천서(목회자) 2명 이상을 3월 15일까지 이메일(sddkim206@gmail.com)이나 우편(2300 Austinburg Rd, Ashtabula, OH 44004)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koreanashtabula@gmail.com

뉴욕장로교회 한국초대교회사 특별강의 시리즈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가 설립 50주년 기념 한국초대교회사 특별강의 시리즈를 개최한다. "한국 초대선교오 부흥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강사는 박용규 교수(총신대원 교회사). 1월 19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열린다.

▲문의: (718)706-0100

뉴욕목사회 2020년 기도로 시작!

최요한 목사 "인내하는 자의 복" 설교

뉴욕목사회가 지난 1월 23일 오전 10시30분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2020년 신년기도회를 가졌다.

회장 이준성 목사는 "뉴욕목사회 48회기가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라며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목사회는 재정이 미약하나, 분에 넘치게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 분들이 있다. 개인회원들에게 부담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 기도해 달라"고 인사했다.

예배는 총무 마바울 목사 인도로 기도 한기술 목사, 성경봉독 김희숙 목사, 설교 최요한 목사, 합심기도, 헌금기도 정숙자 목사, 헌금송 송금희 전도사, 축사 송병기 목사, 특별위촉회원(최요한 목사), 광고 이기응 목사, 축도 정순원 목사, 만찬기도 심화자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뉴욕목사회 2020년 신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최요한 목사(서울 명동교회 담임, 국제선교신문 대표)는 "인내하는 자의 복"(약5:7-11)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오늘이 시대는 인내가 필요한 시대다. 요즘 예수님 정신으로 청빈의 삶을 살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며 "계산하면 주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 중국선교에서 돌아와 2011년 서울 명동에 개척했는데 프린스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선교사를 위한 오피스텔을 10개 소유하고 있는데 목표는 120개 있는 오피스 빌딩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믿음에서 떠나는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목사답게 살도록 인내하라"고 역설했다.

송병기 목사는 "목사회가 기도로 시작하게 돼 감사하다"며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말씀 밖에 없다. 2020년 말씀으로 돌아가 뉴욕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한다"고 축사했다.

한편 목사회는 3월 금식성회를 위해 2월 7일과 28일 준비기도회를 갖는다.

〈유원정 기자〉

글로벌뉴욕여목연 제 4회기 시무예배 및 회장 이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비움과 채움으로 성령이 함께 하는 사역되길"

글로벌뉴욕여목연 제 4회기 시무예배 및 회장 이취임식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 제 4회기 시무예배 및 회장 이취임식이 1월 22일 오전 10시30분 뉴욕초대교회에서 열려 심화자 목사가 이임하고 신임회장에 안경순 목사가 취임했다.

안경순 목사는 소명을 맡겨준 회원들에게 감사한다며 "△매월 목회자 중보기도회 △어머니기도회 △다양한 은사대로 상호교제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한인사회를 위해서도 섬기면서 일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심화자 목사는 "지난 1년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오며 최선을 다했다"며 "4회기가 회장과 회원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바란다"고 이임사를 했다.

1부 예배는 부회장 김희숙 목사 인도로 기도 오명의 목사, 성경봉독 박드보라 목사, 특송 뉴욕사모합창단, 말씀 양민석 목사(뉴욕교협회장), 헌금특주 김사라 목사 외 3명, 헌금기도 조문자 목사, 축도 김승희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양민석 목사는 "너도 나처럼"(막10:43-45, 눅4:17-19)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는다"는 오스왈드 샌더스의 책을 인용하면서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적 리더십에 대해 첫째, 대야의 리더십(발씻김의 섬김) 둘째, 래디컬한 리더십(내 목숨으로 타인을 살리는)"을 강조했다.

양 목사는 뉴욕목회의 어려움을 간증하며 "기도함으로 비움과 채움의 영성을 통해 성령이 함께 하는 사역으로 이길 능력을 받아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소망대로 연합회 사역을 이루기 바란다"고 전했다.

2부 이취임식은 권캐더린 목사 사회로 조상숙 목사의 개회기도 후 이임사와 취임사, 특송(홍보래 집사), 권면(윤세웅 목사, 전희수 목사), 축사(정순원 목사, 이준성 목사), 격려사(최요한 목사)가 있은 후 안경순 목사가 심화자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취임식은 김영식 목사의 폐회기도와 만찬기도 후 모든 순서를 마쳤다.

뉴욕어머니기도회는 매월 셋째 수요일 오전 10시30분 은혜사랑교회에서 기도회를 갖는다.

▲연락처: (347)885-2845 안경순 목사, (347)828-0300 김사라 목사.

〈유원정 기자〉

뉴욕한인중앙교회 전진은 담임목사 위임식

뉴욕한인중앙교회 6대 담임 전진은 목사가 지난 1월 12일 저녁 5시 위임식을 가졌으며 이날 장로임직식도 열렸다.

전진은 목사는 동부한미노회 소속 한소망교회 교육목사 등으로 사역했다. 2016년 5월부터 메릴랜드 솔즈베리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다 청빙을 받고 다시 뉴욕과 뉴저지로 돌아왔다. 전진은 목사는 한국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1996년 예장통합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동 교회는 1963년 설립돼, 1970년 뉴욕한인중앙교회로 교회이름을 바꾸고 신성국 목사가 초대 위임목사로 취임했다. 그리고 조덕현, 문정선, 김원재, 조한경 목사에 이어 전진은 목사는 6대 담임목사로 위임됐다.

C&MA 동부지역회 2020 신년하례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C&MA 동부지역회 2020 신년하례예배

C&MA 한인총회 동부지역회 2020 신년하례예배가 1월 20일 오후 5시 뉴욕어린양교회(담임 박윤선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지역회 회장 이종현 목사가 이번 회기의 지방회 표어인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합3:2)"를 함께 외치며 시작됐다.

찬양인도 김영준 목사, 묵도 한기술 목사, 기도 윤태섭 목사, 성경봉독 김태욱 목사, 특송 최명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종현 목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2:19-2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우리들"이라며 "지역회 22교회(2개 협력교회 포함)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축복들이 임하기를 축복한다. 그동안 인내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만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2020년에는 거봉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듯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가득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22교회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축복했다.

김윤근 목사가 헌금기도, 오는 3월 목사안수를 앞둔 3인의 전도사들의 특송이 진행됐다.

백한영 감독은 신년축하 메시지를 통해 "한인총회 감독으로 여러 지역회 모임에 참가했지만 지역 회장이 소속교회를 하나도 안 틀리고 외우는 것을 처음 보았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개척국장과 부감독으로 한인총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한인이민교회들이 어려워지는 것을 감지했다. 처음 5-6년여 동안 성장하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2년여 전부터 조금씩 성장하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고 "새해에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조금만 더 붙들고 있으면 교회마다 성장할 일이 일어날 줄 믿는다"고 축복했다.

직전 회장과 임원들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지역교회들에 격려금이 전달됐다.

통성기도는 김승노 목사가 총회와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뜨겁게 인도했다. 예배는 이병수 목사 축도로 마치고 식사와 친교가 이어졌다.

〈기사제공: C&MA〉

뉴욕목사회가 주최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신칭의'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믿음으로 구원...강사 정부홍 목사

뉴욕목사회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신칭의' 세미나

뉴욕목사회가 청교도 400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신칭의' 세미나가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렸다. 강사는 정부홍 목사(예일대 에드워즈센터 상임 연구원).

세미나는 박시훈 목사 사회로 김정숙 목사가 기도한 후 회장 이준성 목사가 세미나 교재로 사용될 강사의 저서 "이신칭의"의 가치를 강조하며 남아공과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정부홍 목사를 소개했다.

정 목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진 강의에서 오전에는 에드워즈의 생애에 관해, 또 어거스틴 등 타 신학자와 비교, 에드워즈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 등 개괄적인 강의를 했으며 오후에는 에드워즈의 이신칭의론이 구별되는 특징에 대해 강의했다.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독교 기본교리로 정 목사는 △에드워즈는 선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을 완전히 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의 교리의 존재론적 근거는 전적타락 △믿음은 단순한 영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임 △또 다른 의미에서 볼 때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조건인 것은 아니다 △도덕적 적합성과 자연적 접합성: 칭의에서 믿음의 역할 △전가 또는 주입: 성도의 이중적 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와 그의 내재된 의 △그리스도 중심적 칭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소극적 순종과 적극적 순종 △칭의에 대한 믿음의 충족과 우선 칭의는 단회적이며 완적하고 최종적이다 등에 대해 강의했다.

〈유원정 기자〉

CBSN 개국5주년기념 신년음악회 출연진들이 기념촬영 했다.

암환자 돕는 희망음악회로

CBSN 개국5주년기념 신년음악회

CBSN(뉴욕기독교방송·사장 문석진 목사)이 주최한 개국 5주년기념 신년음악회가 1월 26일 오후 6시 플러싱 타운홀에서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암환자 돕기 희망음악회로 NYPAC(뉴욕퍼포밍아트컨설턴트)가 주관했다.

사장 문석진 목사는 "암환자(새생명선교회 대표 심의례 전도사)를 돕기 위해 개국5주년기념 희망의 신년음악회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음악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팍팍한 세상이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그들을 돕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그들을 후원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인사했다.

지현희 아나운서(뉴욕라디오코리아 진행자) 사회로 시작된 음악회는 양민석 목사(뉴욕교협 회장)이 개회기도 했으며, 이준성 목사(뉴욕목사회 회장)가 헌금기도와 축도했다.

음악회는 이선경 지휘로 CBSN 챔버오케스트라와 CBSN합창단, 소프라노 에리카문, 테너 구태환, 윤두현, 바리톤 박동원, 피아노 김성혜, 바이올린 강지선, 첼로 제키현 등이 출연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이노비가 브롱스 캘버리 병원에서 공연하고 있다.

이노비, 브롱스 캘버리 병원 찾아 재즈음악회

문화복지 비영리기관 이노비(EnoB: Innovative Bridge)가 1월 23일 브롱스 캘버리 병원을 찾아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재즈음악회를 연주했다.

브롱스 캘버리 병원은 말기 암환자 등 생의 마지막 단계를 맞은 환자들이 마지막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전문병원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없고, 몸이 불편해 공연 장소로 내려오지 못하는 200여명의 환자들이 병실에서 생중계로 공연을 지켜보는 등 특히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이다. 이노비는 벌써 이곳에 7년째 꾸준히 무료 음악회로 찾아오고 있다,

이번 공연은 오랫동안 이노비에 참여한 드러머 석다연씨가 카혼과 퍼커션을 연주하고 음악감독으로 참여했고, 재즈피아니스트 이용현과 테너 색소폰에 박동국씨가 함께했다.

이 공연은 이노비가 뉴욕에서 여는 올해 첫 번째 공연으로 이노비는 올해도 총 70회가 넘는 소외된 이들을 위한 음악회와 프로그램을 열 계획이다.

〈기사제공: 이노비〉

"다음세대 일하는 마당 마련"

OC기독교전연 40주년 신년시무예배 및 하례식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민김) 40주년 시무예배 및 하례식이 26일 오후 4시 오렌지카운티한인회관에서 열렸다.

민김 회장은 "함께 2020년 맞아 40년 역사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겸손히 최선을 다해 섬기고 기도로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우경 이사장은 "연합이 힘든 시기다. 어느 단체든 후임자가 없다. 우리들의 책임이다. 다음세대들이 일하는 마당을 마련하는 책임을 다하는 20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OC 기독교 전도회연합회 40주년 신년시무 예배 및 하례식에서 본연합회 이사들과 임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민김 회장 사회로 열린 예배는 양금호 목사(자문위원)가 대표기도 했으며 유재원 부회장이 성경봉독하고 박상목 목사(OC교협회장)가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1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윤우경 이사장 인도로 중보기도시간을 가졌는데 △기독교전도회연합회를 위하여 △OC지역 화합과 각 교회를 위하여, 세계 각 지역에 있는 선교사를 위하여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기도했으며 주도진 목사(자문위원)가 축도했다.

윤우경 이사장 사회로 열린 신년하례식 및 시무식은 오위영 목사가 미국국가와 애국가를 불렀으며, OC원로사모하프단과 김창달 장로가 특별 연주했다. 이어 민김 회장과 윤우경 이사장이 연임 인사를 했으며 임원 및 이사 소개가 있었다.

이어 곽재필 목사(OC목사회 증경회장), 남상국 목사(연목회 회장), 심상은 목사(갈보리선교교회 담임), 김종대 장로(OC한인회장), 신영균 장로(OC노인회 회장), 영김 연방하원의원 후보, 이병만 장로(미주한인재단LA 회장)이 축사했으며 김기동 목사(OC교협 증경이사장)가 권면했다.

이어 공로패와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날 모든 순서는 신명균 목사(연목회 부회장)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주님의영광교회 창립21주년 감사예배에서 신승훈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교육관 건축계획 발표, 내년말 완공

주님의영광교회 설립 21주년 감사예배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설립 21주년 감사예배가 26일 예배시간에 열렸다.

신승훈 목사는 "21년 동안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앞으로 영혼들을 전도하고 잘 양육하는 교회가 됐으면 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신승훈 목사 사회로 열린 예배는 최재덕 장로가 기도했으며 영광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신승훈 목사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16:13-1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신승훈 목사는 "예수님은 왕이요 예언자이시며 구원자시다. 따라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옥에 가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예수님을 알고(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믿으면 교회가 된다.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못이기는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열쇠를 주셨다"며 "주님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열쇠를 받은 자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 교회는 교육관 건축계획을 발표했다.

드림센터라는 이름으로 건축되는 교육관은 총 면적 65,000스퀘어피트 크기인 2층 건물로 지어진다. 부대시설로는 교육관 8개 부서, 사무실, 800명이 들어가는 친교실(식당), 체육관, 웨딩채플, 교구모임방이며 옥상에는 카페를 비롯한 휴식처가 마련된다.

총비용은 1300만 달러가 소요된다. 올 하반기 업체선정 및 착공을 하고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

〈박준호 기자〉

은혜한인교회 신년축복성회에서 유영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 주제

은혜한인교회 신년축복성회, 강사 유영완 목사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신년축복성회가 23일부터 26일까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13:34-35)'라는 주제로 열렸다.

첫날 오후 7시30분에 열린 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유영완 목사(천안하늘중앙교회 담임)는 '참된 제자입니까'(요8:31-3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를 따르는 부류는 무리와 제자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영적으로 교재하기를 원하시고 하늘나라 사역을 위임하셨다"라며 "믿음생활하면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여 하나님사랑 주님은혜 깨닫고 맘속에 감사가 넘쳐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게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유 목사는 "기도생활 말씀생활에 힘써 주님과 깊은 교재 힘써야 한다"며 "영적 교제 없이 사역하게 되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타인에게 상처 되고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게 된다. 좋은 교회, 능력이 많은 교회는 제자가 많은 교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님의 참된 제자는 첫째,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관으로 삼아 참된 제자돼야 한다. 둘째, 서로 사랑해야 한다. 최고의 사랑은 영혼구원이다. 최대의 사랑은 중보기도다. 그래서 전도와 사랑에 목숨 걸어야 한다. 셋째, 십자가를 질줄 알아야 한다. 십자가는 희생이다. 어떤 대가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주님 편에 서는 것"이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토랜스제일장로교회 말씀부흥회에서 권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교회, 다시 부르심 앞에 서자' 주제

토랜스제일장로교회 말씀부흥회, 강사 권준 목사

토랜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 말씀부흥회가 '교회, 다시 부르심 앞에 서자'라는 주제로 24일부터 26일까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

24일 오후 7시30분에 열린 첫날 집회는 고창현 목사 인도로 시작, 정문자 장로 기도, 호산나찬양대 찬양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권준 목사가 '교회, 다시 부르심 앞에 서자!'(행2:42-4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권준 목사는 "온 백성에게 칭송 받는 교회,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공동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과 다른 하나님과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부흥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 말했다.

권 목사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나라, 예수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통치를 따라 하나님 가치관으로 따라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 안에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 받는,자가 날마다 더해져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동문교회 2020 신년부흥성회에서 장경동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강사 장경동 목사, 김호민 목사

동문교회 2020 신년부흥성회

동문교회(담임 고귀남 목사) 부흥집회가 20일부터 22일까지 열렸다.

21일 오후 7시30분 열린 둘째 날 저녁집회에서 장경동 목사는 "동성애 같은 죄를 법으로 정해서 허용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기도가 생명을 살린다. 마태복음 11장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록돼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예배에 기도가 사라졌다. 1시간 예배 때 기도는 대표기도뿐이다. 기도가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부흥성회는 20일부터 23일 저녁집회는 장경동 목사가, 22일과 23일 새벽집회는 김호민 목사가 각각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한인가정상담소 후원 자선 골프대회

한인가정상담소 후원 자선 골프대회 및 동포들과 함께하는 연예인 디너파티가 2월 4일 낮 12시 리오 혼도 골프 클럽(10627 Old River School Rd, Downey, CA)에서 샷건 방식으로 진행된다. 갖는다. JSJ 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홀인원 상금 3만 달러 등 다양한 시상 및 이벤트 경품이 준비된다. 연예인과 함께하는 프로암 골프 라운딩 참가비 200달러, 일반 골프 참가비는 150달러, 디너파티 참석 티켓 가격은 100달러다.

▲문의: JSJ 엔터테인먼트 (213)382-1004

담임목사 청빙

아르헨티나중앙교회는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지원자격은 정규신학대학원(합동측) M.Div(목회학석사)이상, KAPC 교단소속이거나 본 교단 가입에 문제없는 만 45세 이상 60세 이하인 목사안수 후 목회활동(부목사 포함)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목회계획서(목회철학 및 자기소개서),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목사재직증명서 및 목사 안수증명서, 추천서 2부이며 오는 3월 5일까지 본 교회 담임목사청빙위원회(juanapa@hanmail.net)로 제출해야 한다.

▲문의: juanapa@hanmail.net

굿네이버스, 조수아 초청 나눔 콘서트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USA(회장: 이일하 http://www.gnusa-kr.com)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굿네이버스 나눔대사 조수아 찬양 사역자를 초청해 남가주 지역에서 나눔 콘서트를 실시한다. 일정은 △2월 2일(주일) 오전 11시30분 LA 워십교회(변경진 목사) △5일(수) 저녁 7시30분 LA온누리교회(이정엽 목사) △6일(목) 오전 10시 30분 얼바인온누리교회(박신웅 목사) △9일(주일) 오전 11시 샌디에고 온누리교회(이민욱 목사). 이 기간 중에 토요 새벽예배나 2월 7일 금요일 찬양집회에 초청을 원하는 교회나 단체는 김재학 본부장에게 연락하면 된다.

▲문의: (213)447-9988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통큰통독 일독학교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대표: 주해홍 목사)은 2월 4일부터 5월 21일까지 통큰통독 일독학교를 LA와 OC에서 시작한다. LA 23기 일독학교는 남승우 목사를 강사로 오는 2월 4일-5월 19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LA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1458 S. San Pedro St. #320호 LA), 오후반은 정선희 전도사를 강사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LA비젼교회(520 S. Lafayette Park Pl. #200호)에서 갖는다. OC 13기 일독학교는 김민섭 목사를 강사로 2월 6일-5월 21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30분까지 디사이플교회(720 N. Valley St. suite F. Anaheim)에서, 오후반은 정소진 전도사를 강사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12612 Buaro St. Garden Grove)에서 갖는다. 등록비는 150달러, 재수강자는 120달러, 교재비는 별도이며 모든 학교 주차는 무료다.

▲문의: (714)287-2854

숭실대 웨스트민스터합창단 미서부 순회연주회

숭실대학교(총장 황준성) 웨스트민스터합창단(단장 조은식 교목실장, 지휘 장세완 교수) 미서부 순회연주회가 2월 5일(수)까지 개최된다. 일정은 △1월 29일(수) 오전 10시 영락교회, 오후 7시 30분 인랜드교회 △2월 2일(일) 오전 10시 파사데나 장로교회, 오후 6시 30분 오렌지한인교회 △1월 31일 오후 7시 라스베이거스 갈보리장로교회 △2월 5일(수) 오전 11시 산호세 임마누엘장로교회 오후 7시 베델연합감리교회.

▲문의:(213)308-0764

남가주교회음악협회 신년임원회의에서 임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회장 전현미, 부회장 랜디김

남가주교음협 신임원 및 2020년 사역계획 발표

남가주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 신년 임원회의가 카페 플레인(구 세븐스홈)에서 열렸다.

전현미 회장은 "음악인으로 교회에서 맡겨주신 활동을 평생 동안 호흡 다하는 날까지 최선 다하는 것에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며 "2020년 신임원으로 교회음악협회 사역을 함께 하는데 주께서 주신 새 힘으로 이웃의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협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본 협회 임원진이 발표됐다.

임원진은 △회장: 전현미 △부회장: 랜디김 △회계: 김혜정 △미디어분과장: 전요셉 △작곡분과위원장: 이호준 △작곡분과부위원장: 황현정 △합창분과 위원장: 박신실 △학생분과위원장: 윤진영 △기악분과위원장: 오윤정이다. 그리고 2020년 사업 및 행사계획은 △신년임원회: 1월 26일 △청소년 찬양페스티벌: 5월 예정 △제39회 창양합창제: 11월초(장소: OMC) △총회: 12월 △제20회 창작 성가의 밤: 2021년 2월로 결정됐다.

〈박준호 기자〉

투/고/칼/럼

강승호 목사
(순복음중앙교회)

"올 해는 10대 이정표로 살아 가십시다"

잡을 수 없는 세월은 벌써 신, 구의 설 절기도 지나갔다. 올해는 어떤 이정표를 정하고 도전할 것인가? 부는 바람 치는 물결 뒹구는 낙엽이나 정처 없는 구름처럼 때나 게나 살겠다는 것은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 자녀 된 우리로서는 너무 허무하고 의미 없는 삶이 아닌가? 그래서 올해는 10대 이정표를 세우고 전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된다는 꿈을 꾸며 도전합시다.
출애굽 민족이 과거에 사로잡혀 원망 불평 하다가 열 하룻길이면 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40년 고생하다 그의 후손들만 들어간 것은 정함이 없는 삶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절대 희망을 잃지 않았다.

2, 올해는 입술을 선용하고 시인합시다. 말 한마디가 생사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 기분을 좌우하고 좋은 말만 해도 못다 하고 가는 인생이다. 다윗이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 가면서도 소망찬 언어로 난관을 극복했다.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언어는 말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좌우하게 됩니다.

3, 생각을 건설적으로 가집시다. 가나안 12명 정탐꾼 중 10명은 부정적 생각이었으나 똑 같은 환경서도 여호수아, 갈렙은 희망찬 건설적 생각이 가나안 입성의 원동력이 되었지요,

4, 욕심을 갖지 맙시다. 사람은 누구나 명예욕, 물질욕, 이성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은 누구나 초로인생이요 공수래공수거의 인생무상이다. 사울 왕이나 솔로몬, 하만, 나발, 아나니아 삽비라의 말로를 보라. 주어진 환경에 힘겨워도 살아 있음을 중하게 여기자.

5. 겸손하게 삽시다. 내가 남들을 인정할 때 나도 남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며 참이 아니면 보지도 맙시다.

6.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세상이 불공평해도 비리가 많아도 진실 되게 살 때 흑막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단히 노력하여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갈 때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남이 나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미워도 좋아도 한세상 열심히 뛰며 삽시다. 푸시킨은 삶이 그대를 속일 지라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 사노라면 잊을 날이 있으리라 했지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맡기라고 하십니다.

7. 인내심을 가집시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어떠한 악조건도 지나가는 과정이다. 병자나 한 가지 일에 실패자는 그 자체뿐이지 인생 전부 실패는 아니다. 모세의 9전 10기를 보라.

8. 웃으며 삽시다. 맑고 밝고 환한 표정의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다. 웃는 자에게 병마나 시련이 올 수 없다. 사라는 90에 웃음으로 득남하였습니다. 칭찬하며 삽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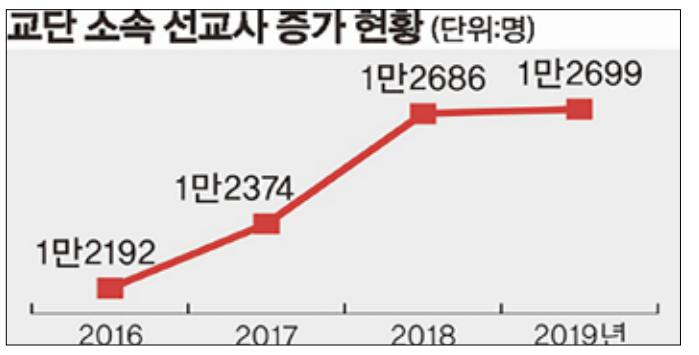
9. 감사하며 삽시다. 한번 뿐인 인생 다시 못보고, 가면 못 올 인생이다. 살아 있음을 얼마나 감사 한가? 세상에는 많은 불행자들이 살고 있다.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 속에 산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가?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생로병사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며 살아 있음을 감사합시다.

10. 사랑하며 삽시다.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으며 직업에 귀천 없고 가족과 직장의 소중함을 알며 연애시절 생각하며 남들이 아무리 친절해도 내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가족의 귀중함, 노동의 소중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정신으로 위에 10대 이정표를 실천하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gospel_5th@hotmail.com

KWMA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 발표 눈길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최근 발표한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은 한국교회의 선교 패러다임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해외로 나갔던 선교사들은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한국을 새로운 선교지로 보기 시작했다. 세계 선교 환경이 불확실해지면서 교단과 선교단체가 협업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KWMA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해외선교사 파송 현황을 발표했다. 눈길을 끈 데이터는 한국 전체 파송 선교사의 45%를 교단에서 파송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수가 직전 해 1481명에서 지난해엔 1631명으로 전년 대비 150명 증가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선교 전문가들은 두 데이터만으로 선교환경이 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선교 활동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선교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는 공감했다.



돌아오는 선교사 증가..국내 이주민 대상 새 전략 세워야

다문화 사회, 한국은 새로운 선교지

한국으로 돌아온 선교사 숫자가 늘어난 근본 원인은 달라진 선교환경에 있었다.
우선 일부 국가들은 자국 이익 중심으로 국가정책을 바꿨고 선교사들은 종교나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비자를 받기 어렵게 됐다. 아예 선교사의 활동을 압박하는 경우도 생겼다. 최근 선교가 자유롭지 못한 동북아시아 A국의 종교정책이 대표적이다. A국은 한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다.
자발적으로 한국행을 선택한 선교사들도 있었다. 이들은 국내에 다문화 가정과 난민이 늘면서 한국을 새로운 선교 사역지로 봤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주목했다.
성결대 구성모(선교학과) 교수는 "국내 이주민 가정이 240만명인데 이들을 선교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해외 한인교회를 한국 사역자가 목회하는 사례를 들었다. 구 교수는 "이주민들을 사역자로 양성해 같은 나라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인 선교사와 협력하면 시너지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버려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한국선교연구원 홍현철 부원장은 "전통적인 선교사 개념으로 보면 국내에서 일하는 선교사에 대해 편견을 가질 수 있다.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 후원이 중단되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선교사는 전통적으로 자신의 국가를 떠나 해외의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선교지가 전 세계 모든 곳으로 변하면서 선교 장소보다는 선교사가 어떤 사명을 갖고 활동하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홍 부원장은 "다음 사역을 위해 안식년을 가지거나 새로운 선교지를 탐방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학위 과정을 이어가는 선교사도 있다"고 전했다.

KWMA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체 파송 선교사 중 교단 파송 선교사가 절반 가까이 됐다. 그나마 교단과 독립선교단체 간 파송 선교사 숫자에 균형이 깨질 정도로 지나친 쏠림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양쪽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홍 부원장은 "교단과 선교단체를 대립적인 관계로 보면 안 되고 상호보완적 관계로 봐야 한다"며 "한국교회에서 교단과 선교단체가 협력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단과 선교단체의 고유 특징과 장점을 살려야 한다는 뜻이다. 각각의 장단점도 꼽았다. 선교단체보다 교단은 지역교회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특히 최근에는 교단이 선교 훈련과 지원, 행정시스템에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 데다, 인적 물적 지원도 수월해 선교 현장에서 규모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다. 단점도 있다. 교단 선교부는 교단의 입장을 배제하거나 넘어서기 힘들고, 교단의 의사결정 구조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선교정책의 유연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사역도 교회 개척이 주를 이룬다.
반면 선교단체 파송 선교사들은 활동이 자유로워 선교지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가 수월하다. 사역 내용도 다양하다. 하지만 한국 내 지원이 빈약하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독립선교단체가 가진 현지 네트워크 등 강점과 교단의 재정적 인적 장점을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구 교수는 "단순히 선교사를 파송하던 데서 미국처럼 선교사 교육부터 파송, 선교지 비자, 돌봄, 은퇴까지 선교사의 일생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원장은 "각각의 특성과 장점이 잘 활용되고 서로 협력해, 한국 선교가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기하성, 한기총 '행정보류' 해제

긴급임원회 열고 연합기관 대통합 조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긴급임원회를 열고 연합기관의 대통합을 전제 조건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 대한 행정보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3월 실행위원회(실행위)에서 하기로 했다. 기하성은 지난해 6월 11일 한기총의 '지나친 정치 편향 행보'와 '설립 목적과 다른 방향'을 이유로 행정보류를 결정했다.
기하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한기총이 요청해온 복귀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임원회를 소집했다"며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등과의 대통합을 전제로 행정보류를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하성 관계자는 "긴급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교단 헌법에 따라 총회 전에는 실행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실행위에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다"며 "4월 정기실행위 이전인 3월 중으로 임시 실행위를 열어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긴급임원회는 "한기총이 요청한 복귀 문제를 놓고 찬반 토론을 벌여 한기총이 먼저 사분오열된 한국교회의 연합기관을 하나로 통합할 의지를 보이고 한교총과 한교연과의 대통합에 적극 나선다면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행정보류를 해제하는 게 맞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상원 교수에 추가 징계심의

동반연, 총신대 재단이사회 규탄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지난 23일 총신대 재단이사회(이사장 정용덕) 측에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이상원 총신대 교수의 개인행동으로 보고 추가 징계심의 사유로 삼은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동반연은 "재단이사회는 지난 14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측 56개 노회장들이 낸 입장문과 16일 동반연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이 연 기자회견을 이 교수의 개인행동으로 봤다"면서 "하지만 이는 모두 이 교수가 관여하지 않은 각 단체의 자주적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진영 논리로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유'라고 규정하며 징계심의 사유에 추가한 것은 동성 성행위의 객관적 위험을 가르칠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연말 '생명윤리' 강의에서 남성 동성 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남성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보건상 위험성이 이성 간 성행위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예장합동 56개 노회장들과 동반연 측은 이 교수의 발언에 대해 각각 "이미 총신대에서도 성경적·의학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성희롱이 아닌 동성애에 대한 복음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자 재단이사회는 지난 16일 이사회 회의를 통해 "이 교수는 성희롱 징계 논의를 동성애 비판 강의에 대한 탄압 사건으로 몰고 가는 등 진영 논리로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서 "이 같은 사유를 추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결정했다.

국내 거주 기독 외국인…설 나눔행사 · 예배 어떻게

고국 음식 먹으며 향수 달래고, 수련회로 영성 키우고…

국적과 공간, 규모를 뛰어넘어 민족의 대명절 설을 의미있고 따뜻하게 보내려는 한국교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맞아 한국교회는 명절 연휴를 영적 교제와 쉼이 어우러진 수련회 기간으로 활용했다.
경기도 안산 새생명태국인교회(홍광표 목사) 예배당은 명절이면 2박3일간 수련회장으로 변한다. 국내 거주 태국인을 대상으로 2006년 사역을 시작한 이후 15년째다. 홍광표 목사는 22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가족을 떠나 타국에서 명절을 맞는 외국인 성도들에게 수련회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털고 새로운 힘을 얻는 '대가족 모임'이 돼 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 수련회의 주제는 '싸마키탐 행 콥락'(사랑의 교제)이다. 주제에 걸맞게 다채로운 시간이 준비됐다. 연휴 첫날인 24일 저녁엔 성도들의 손맛에 고향의 향수까지 담아낸 태국 음식으로 풍성한 식사를 나누고 그룹별 모임을 진행했다. 25일엔 인근 딸기농장으로 체험 나들이를 떠났다. 주일 낮과 저녁 예배에는 태국 5대 교회로 꼽히는 짜이싸만교회 터싹 목사가 강사로 초청돼 메시지를 전했다.
경기도 포천 송우벗사랑교회(안정호 목사)에선 베트남 성도들을 위한 1박2일 수련회 열렸다. 안정호 목사는 "오후 4시부터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반쯩(떡국) 넴(베트남식 만두) 믁(야자수 열매로 만든 젤리) 등 고향 음식들을 먹으며 교제하다 보면 어느 샌가 고된 일상을 잊고 웃음꽃이 핀다"고 말했다.
설날을 맞는 카운트다운은 수련회의 트레이드마크다. 안 목사는 "설날 자정에 맞춰 성도들과 카운트다운을 하고 '쭉 묵남머이'(새해를 축하합니다)를 외치며 서로를 껴안아 준다"고 소개했다.
설날 당일 가정예배 확산을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서울영락교회(김운성 목사)는 예배부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설날 가정예배 모범'을 제작해 배포했다.
인도자가 에베소서 3장 20-21절 말씀으로 '예배로의 부름'을 열고, 사도신경에 이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을 함께 불렀다. 성경봉독은 이사야 7장 11-14절 아하스왕의 이야기다. 이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찬양한 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했다.
영락교회 3남·여선교부 조두형 목사는 "어려운 시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을 믿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과 찬양을 선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 영은교회(이승구 목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란 고백의 시편 23편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며 "선한 목자와 함께하는 2020년이 되자"고 했다. 찬송도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를 선택했다. 영은교회는 "설날 가정예배 후 가족사진을 촬영해 메일과 카카오톡으로 교회에 보내주면 예쁜 액자에 담아 선물로 드렸다"고 소개했다.

"우울증과 영적 치유" (10)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치유의 간증

1. "신앙의 위기"-켈리 밀러

나는 25세에 항우울제 복용을 시작했다. 그 당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이혼을 하면서 전신성 피부질환인 낭창(Lupus)이라는 병에 걸렸다. 낭창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조제약품과 함께 일반 가정의가 처방한 항우울제를 복용하기로 했다.

내가 31세가 되었을 때, 6년이 지나는 동안 같은 항우울제를 최대치로 복용하고 있었는데 차츰 더 강한 것이 필요했다. 마침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급성 임상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12년 동안 계속해서 항우울제를 복용했지만 그 아무런 효용이 없었다.

2008년 12월 나의 두 번째 남편이 이혼을 원했다. 그것과 또 많은 다른 이유로 나는 폭주를 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아담스카운티 교도소에서 4-12년의 구형을 받은 F2-급 폭행 중죄로 판결을 받았다.

국선 변호사를 신청한 후 법정 자문을 구하러 갔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예비해놓고 계셨지만 나는 아직 분노로 가득 찬 상태였다. 그 때 만난 바버라라고 하는 재소자가 내게 기도해주길 원하는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기도를 해주는 것은 나쁠 것이 없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영접한 적은 없었으나 그러고 싶다고 말했다. 그 때 41살이었던 나는 무엇인가 변화를 갈구하며, 하나님께 기회를 한 번쯤 드릴 때라고 생각했다.

바버라는 나를 위해 기도했고, 그러는 그녀가 천사 같다고 느껴졌다. 그녀와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서 전에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정신적, 신체적인 감동을 받았다. 나는 몸이 따뜻해옴을 느꼈고, 말로 형용할 수 없지만, 기쁨과 평안함으로 충만해졌다. 재판 날에 나의 형은 F6-중죄로 감형되었으나 18개월의 보호 관찰을 받았고, 2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다. 그동안 남편은 나의 모든 것, 심지어 아이들의 사진과 책들까지 챙겨 이사를 했다.

내가 교도소에서 출감했을 때는 집이 없어 거리에서 살게 되었다. 보호 감찰관을 찾아가는 것을 지키지 않고 보고하지 않는 바람에 약을 무료로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18년 만에 항우울제를 끊게 되었다. 그 모든 기간 동안 믿음을 위태롭게나마 지켰고, 하나님께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다.

내 보호 감찰관은 결국 2010년 8월에 체포 영장을 발부해서 나를 붙잡았다. 나는 다시 ACDF 교도소로 돌아왔고 지역사회 교정이라는 형량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나는 너무도 지쳐 있었고 앞으로 내게 다가올 여러 해 동안을 이 회전문 안에서 썩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선고 받기 전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며 재판을 내리는 판사에게 관용을 바라는 편지를 썼다. 판사는 내가 재판을 기다리는 60일을 제외한 30일을 선고 했으며, 18개월 중 16개월의 집행유예 기간으로 보낸 것을 인정해줬다.

내가 이 모든 과정, 즉, 이혼, 집행유예,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거리에 나앉는 삶을 사는 등의 괴롭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나는 여전히 이곳에 있지만, 항우울제를 끊고 감옥에서 나가면 자유인이 되어 결혼도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를 도울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내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경험했을 때, 내 미래에 대한 새 희망과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다. 아이 아빠는 내가 임신 2개월 때 무모한 살인으로 교도소에 갔다.

yonghui.mcdonald@gmail.com

드라마 신약 (12)

김덕수 목사
(생터사역원 LA지부장/하늘소망교회 담임)

바울의 3차 선교여행과 그 후

3차 선교여행 목적은 복음전도와 헌금 프로젝트
로마서 목적은 복음전파와 로마교회 후원 요청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의 2차 선교여행에 동행하였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을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차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3차 선교여행의 목적지는 자연스럽게 에베소가 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3차 선교여행의 목적은 복음전도와 헌금 프로젝트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에베소교회를 개척한 후, 2차 선교여행 개척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교회를 다시 방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한 헌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입니다.

3차 선교여행의 목적지 에베소(행19:1-20)

수리아 안디옥교회에서 출발하여 갈라디아교회를 심방한 후 에베소에 도착하여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약 3년을 사역합니다. 우상 섬김이 성행했던 에베소에는 특별히 점치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후 우상과 점치는 책들을 불태웁니다. 불태운 것이 은 5만 드라크마나 됐다고 합니다. 한 드라크마가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임금임을 감안한다면 5만 드라크마는 어느 노동자의 약 137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되고, 에베소에도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발생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교회가 말썽을 피웁니다. 고린도교회의 문제는 당을 지어 분쟁하고, 성적인 문란과 교회 안에서의 일을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고전16:17)가 써 가지고 온 고린도교회의 문제(고전7:1-)는 결혼문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공중예배 및 은사에 관한 문제와 부활의 교리에 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답을 해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눈물로 쓴 편지와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 고린도교회 문제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제는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말하는 미혹에 빠집니다. 갈라디아교회에서도 생겼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히 고린도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한 채 다시 온다는 약속을 하고 에베소로 돌아옵니다(고후1:15-23).

바울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는 대신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전달을 부탁합니다(고후7:6). 이 때 쓴 편지는 지금 우리 손에는 없지만, 바울이 눈물로 썼다고(고후2:4)하여 일명 '눈물로 쓴 편지'로 부릅니다. 이 편지는 아마도 갈라디아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조로 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를 보내고 난 후에 바울이 후회를 했다고(고후7:8)하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를 만나야 고린도교회의 상황을 알게 되는데,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의 마음은 편하지 못했습니다(고후2:12-13).

고린도교회가 말썽을 피우는 동안 에베소에서는 폭동이 일어납니다(행19:23-41). 점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더 이상 우상 숭배하는 일과 점치는 일이 없어진 에베소에서는 우상 제작업자들이 생업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들 중에서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주동하여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 폭동이 있은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로 이동을 합니다(행20:1).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눈물로 쓴 편지'를 들고 갔던 디도를 만나게 되고, 디도로부터 고린도교회가 눈물로 쓴 편지를 읽고 바울에게로 마음을 돌이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고후7:5-7). 그래서 쓰게 된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에는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해서 무섭게 야단을 쳤었나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 변론에 관한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헌금프로젝트와 복귀(행20:1-21:26), 로마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쓴 후, 바울은 마게도냐의 여러 지방으로 다니며 교회들을 돌아 본 후에 헬라(고린도)로 이동합니다. 고린도에 석 달을 머물며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로마서를 쓴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고(롬1:1-15:13), 두 번째 목적은 바울이 서바나(스페인 지역)로 선교를 갈 때 로마교회가 후원을 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롬15:14-33)였습니다.

로마서를 쓴 후, 바울은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바울을 해치려는 음모가 있음을 알고 왔던 길을 되돌아 육로로 이동을 합니다(행20:3). 돌아오는 길에 바울은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좀 길었었나봅니다. 3층 창문에 걸터앉아 설교를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여 그 청년을 살린 후에 앗소를 거쳐 밀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밀레도에서는 에베소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하여 리더십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 때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 무거운 작별인사를 할 때 장로님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권유합니다. 이 때 바울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

에베소 장로님들과 작별한 바울은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하여 제자들과 함께 일주일을 보내고,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들립니다. 빌립의 집에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체포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로마감옥까지(행21:27-28:31)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한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미결수의 신분으로 2년을 갇히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게 되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됩니다. 로마로 가던 중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276명의 탑승자는 구조되어 멜리데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섬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바울은 전도를 하여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석 달 후 바울 일행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약 2년 동안 가택연금의 수감생활을 하였습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였습니다.

옥중서신 집필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를 너그럽게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오네시모의 상전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이 섬기고 있던 교회인 골로새교회에도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교회에 이단들이 침투를 했습니다(골2:4,8). 그래서 그 이단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한 확고한 기독론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골1:9-23). 또한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가정에서(골3:18-21), 직장에서(골3:22-4:1) 살 것을 당부하며 끝인사로 골로새서는 마칩니다. 골로새교회와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에베소서에도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도간의 연합을 강조하며(엡1-4장), 그 거룩한 연합의 모습이 가정에서(엡5:22-6:4), 직장에서(엡6:5-9) 나타나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함을 당부하며(엡6:10-20) 끝인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교회에 보낸 편지인 빌립보서는 골로새서, 에베소서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빌립보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며 바울의 선교에 적극 후원을 했던 교회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복음의 정수를 전하며, 또한 그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목회서신

1차 로마감옥(행28장)에서 석방된 바울은 선교여행을 다시 다니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디모데전서), 그리고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디도서)를 보냅니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후배 목회자들에게 주는 조언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서입니다. 그는 임박한 죽음을 직감하고(딤후4:6-8)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또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목회할 것을 당부(딤후2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말씀을 끝까지 붙들라(딤후3장)는 당부를 끝으로 바울의 행적은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동서신들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dsukim@gmail.com

히즈핑거 (His Finger)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천성 가시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대답하셔야 합니다.

지은이
김성국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책에 대한 문의는 히즈핑거
이메일 hisfinger8386@gmail.com
또는 전화 (718)886-4040, (323)665-0009로 연락해 주세요.

채플린 임상목회 (36)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병원 채플린)

죽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인식

지난 20여년 간은 국민소득이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잘 먹고(well-eating), 잘 사는(well-living) 건강한 삶(well-being)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불필요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그 효과가 과장된 건강식품들로 인한 폐해가 증가하고 있는가하면, 검소하고 적절한 식단을 외면하고 과식과 탐식으로 인한 소화기 계통의 암과 질병들이 놀랍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장암과 위암 발생율은 이미 서구사회를 능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아와 청소년 비만과 당뇨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건강만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상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지경에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원 시 밝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채플린이 중환자실이나 말기암 같은 중증환자들을 일대일 방문 후 평가한 기록을 분석한 결과 천국이나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환자의 비율이 무려 60%가 넘었습니다. 당연히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마지막 순간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의 생명 연장 치료를 가함으로써 육신적인 고통도 가중되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의미 있게 보내지도 못하며, 결국 가족들 및 신앙이 없는 의료진들에게도 본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장면들을 지켜볼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죽음을 예견하고 의사에게 어떤 극단적인 생명 연장조치도 하지 못하도록 해서 의식을 유지할 정도의 적절한 진통제를 투여 받으며 남은 시간을 배우자와 자녀들과 어린 자손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가지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다가 이승을 하직해서 천국으로 떠나는 신실한 신앙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채플린과의 만남을 원하며 병상에 혼자 찾아 온 채플린에게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던 상처와 후회스러운 모든 과거를 털어놓고 심지어 화해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는 서신 등도 대필을 부탁하고 홀가분하게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자기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을 청빙해서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옆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환자 앞에서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고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정작 환자는 천국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소생시켜서 육신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는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 두 번 고통을 안겨주는 안타까운 모습을 경험할 때도 종종 있곤 합니다.

차라리 옆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어드리고 좋아하던 찬송을 불러드리며 심지어 좋아하는 시나 음악도 들려드리면서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는 사영리 같은 복음의 핵심을 전해드려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죽음의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곤 합니다.

병원 채플린으로 일하면서부터는 한 번도 복음을 누구에게도 강제로 또는 적극적으로 전해본 적도 없고 전할 수도 없지만, 선교사로 목회자로 지내면서 전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세례 준 경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심지어 임종을 앞둔 무슬림이나 타종교인들의 요청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주님께 약속하고 지병으로 인해 소환되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항상 죄책감을 갖고 살던 필자에게 주님은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살다가 병이 들어 병원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선교의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tdspark@gmail.com

"사랑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제

필라 안디옥교회 신년축복성회 및 제22차 세계선교 사명자대회

지난 1월 8일부터 12일까지 필라 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 신년 축복성회 및 제22차 세계선교 사명자 대회가 주님의 은혜가운데 성료됐다.

3회의 저녁집회와 주일예배로 이어진 이번 성회는 "사랑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안디옥교회 안의 5개 교회들(한어교회, 영어교회, 스페니시교회, 다민족교회, 시티교회)이 한 자리에 모여 찬양과 기도, 그리고 파송의 시간을 가졌고, 그 후에 각 교회별로 흩어져 선교지에 대한 소개와 선교적 부르심과 헌신의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이번 선교대회 주강사로 섬긴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담임)는 3회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화려함과 편안함으로 상징되는 세겜 땅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인 벧엘로 다함께 올라가자"고 도전했다.

마지막 날 주강사로 선 호성기 목사는 "옥함을 깨트리는 자가 선교사입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아는 자들이라면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옥합인 시간과 재물을 주님을 위해 깨트려야 한다"고 도전했다.

선교사명자 대회기간 동안 안디옥교회 본당 로비와 복도에서는 선교박람회가 개최됐다. 2020년 단기선교팀과 here and now 선교팀 부스가 마련돼 각 선교지를 소개하고 기도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필라 안디옥교회 세계선교 사명자대회 마지막 시간에 모두 일어나 함께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안디옥교회는 25년전 탄자니아로 4명의 단기 선교사 파송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300명의 단기선교사를 파송했으며, 2019년에는 530명의 성도들이 국내외 선교지와 here and now 선교사로 헌신했다.

또한, 22년전 호성기 목사를 통해 PGM선교회가 설립돼 지금까지 280여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됐다.

단기 선교와 기도 후원, 그리고 선교헌금 작정으로 마무리된 이번 대회는 안디옥의 5교회 온 성도들이 선교적 비전으로 하나되고 연합하는 값진 시간이었다. 필라 안디옥교회의 선교의 열정과 헌신을 통해 이 시대 교회들이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사제공: 필라 안디옥교회〉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뇌·신경계 질환

신경계 질환도 다른 내과 질병처럼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환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인성 치매나 파킨슨질환은 모두 나이와 정비례해서 발병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이민자 사회에서는 한국과 다른 문화적인 차이, 언어구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때문에 우울증도 흔하다. 한인뿐 아니라 이민자 사회에서 자살률이 증가하는 원인도 이러한 사회적 고립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노인층에서는 우울증뿐만 아니라 정신분열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많이 보는데 현대사회가 대가족중심에서 벗어나서 능률위주의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심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사회는 노인들이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혼자 독립해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층의 우울증이 매우 심각하다.

중풍도 다른 심혈관 질환처럼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은 뇌출혈로 인한 뇌졸중보다 빈도가 4배정도가 높다. 이는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심장 이상으로 인한 혈전이 뇌로 들어가서 중풍을 유발할 수도 있다. 중풍도 철저한 성인병 관리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으며 원인에 따른 위험인자를 미리 파악해서 예방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허혈성 중풍은 초기에 빠른 치료를 받게 되면 큰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지만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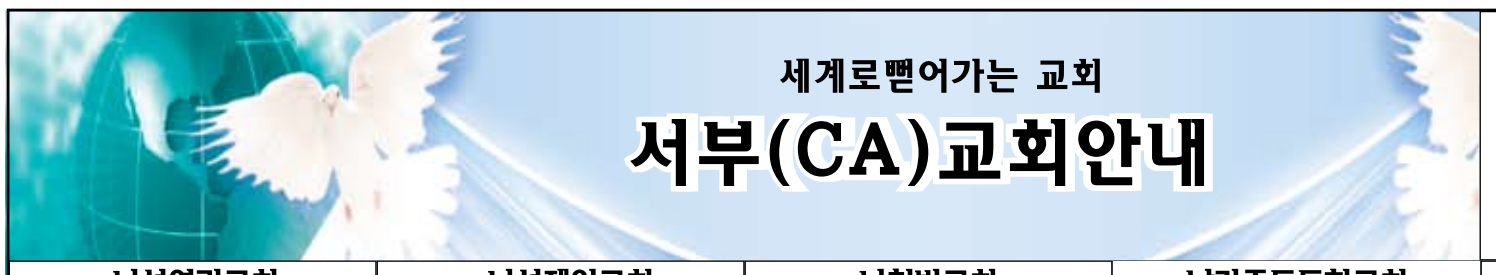
미국 종합병원에서 시행하는 중풍치료 프로그램들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중풍의 경우 심한 고혈압 등의 합병증이 없으면 급성 중풍증상이 나타난 후 3시간 내에 혈전용해제 치료를 받게 되어있다.

두통-뇌혈관의 확장이나 수축으로 발생

두통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흔한 내과질환의 하나로 서구인의 약 12-16%가 두통을 앓고 있다고 한다. 만성두통은 뇌의 기질적 이상이 없이 6개월 이상 두통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크게 긴장성두통, 편두통, 군집성두통 등 세 가지로 분류한다. 긴장성두통은 가장 흔한 두통의 원인으로 편두통과 함께 여성에서 흔하지만 군집성두통은 남성에게 더 흔하다.

긴장성두통은 뇌의 구조적 이상과 관계없이 근육의 긴장에 의해서 뇌혈관을 확장하거나 수축시켜서 두통을 악화시킨다. 긴장성두통의 원인은 스트레스나 육체 피로 등이며 카페인, 흡연, 술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경추관절의 퇴행성 질환이나 턱관절 질환, 만성 부비장염(축농증)도 만성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대부분 두통은 생명에 이상을 주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주의해야 한다. △평생처음 겪는 심한 두통이 갑작스럽게 오고 한 시간이상 지속되는 경우 △심한 두통이 고열과 목이 뻣뻣해지는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 △두통과 함께 혼수나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두통과 함께 사지의 힘이 없어지고 감각이상이 오는 경우다. 이때는 반드시 전문의의 검진을 받아야 한다.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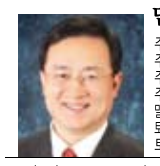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차성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213)388-7101 ,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 일 학 교: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
Tel.(562)691-0691, Fax.(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cebook.com/sr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 은 이 예배 : 오후 1:20
영어권(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00
주일2부예배:오전 9:30
주일3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새 벽 기도회: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머무는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모임: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주일예배 장소)
Office: 106 S Hobart Bl, Los Angeles, CA 90004 (수요모임장소)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 오후 7:30
Tel.(213)381-2202, www.mpcl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90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11:30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Tel.(323)737-3009, Cell.(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헬라어로 엘피스는 (ELPIS)의 뜻은 소망 (Hope) 입니다.
http://www.elpisfamily.org/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Tel.(714)446-6200, www.grace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310)530-4040(CH), www.corner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 M 예 배 : 오전 9:45(101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 요 예 배 : 오후 8:00 (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5:30 (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픰(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 이훈우
주일 예배 : 10시 50분
민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Tel 213) 924-3340, pimission1004@gmail.com
3944 Wlishire Blvd, LA, CA 90010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 김덕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어성경이 읽어지네": 오전 9:0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영어로 보는 성경 (51)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Ephesians 1:3-6

3) Praise be to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in the heavenly realm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Christ. 4) For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to be holy and blameless in his sight. In love 5) he predestined us for adoption to sonship through Jesus Christ, in accordance with his pleasure and wil- 6) to the praise of his glorious grace, which he has freely given us in the One he loves.〈NIV 2011〉

▣ WORD & IDIOM

* realm: 영역, 왕국 * blameless: 책망할 것이 없는 * predestine: (운명을) 미리 정하다 * adoption: 양자삼음, 입양 * in one's sight; ~보기에, ~ 앞에서 * in accordance with: ~에 따라서, ~대로

▣ GRAMMAR

3) Praise be to / the God / and / Father / of our Lord Jesus Christ,
to ~에게 찬양이 있기를 / 하나님 / (그리고) / 아버지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who has blessed us / in the heavenly realms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 하늘의 영역들(왕국) 안의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 in Christ,
모든 영적인 복으로 / 그리스도 안에서 ⇒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왕국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 〈Praise be to ~〉는 〈May praise be to ~〉에서 〈May〉가 생략된 기원문이다. *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역할을 〈and〉와 연결하여 표현할 때 정관사(the)는 하나만 쓴다.

4) For he① / chose us in him② /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왜냐하면 그가(하나님) / 택하였다 그(그리스도) 안에(서) / 세상의 창조 전에

to be holy and blameless / in his sight,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위하여 / 하나님 앞에서 ⇒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위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 이 말씀은 3절에서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①은 하나님 ②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3절과 함께 문맥으로 파악해야 한다. * 〈to be ~〉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말해주는 내용이다.

In love / 5) he predestined us / for adoption / to sonship / through Jesus Christ,
사랑 안에서 / 그가 우리를 예정하였다 / 입양을 위하여 / 자식의 신분으로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in accordance with his pleasure and will-
그의 기쁨과 뜻에 따라서

6) to the praise of his glorious grace, / which he has freely given us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찬송을 위하여 / (그리고) 그것은 그가 우리에게 거저 준 것이다

in the One he loves.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 사랑 안에서 그분(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자 삼으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분(하나님)의 기쁨과 뜻에 따라서 -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자신)이 사랑하시는 자(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찬송을 위해서이다.

* 〈In love〉는 5)절에 포함되는 전치사구이다. 〈in accordance with his pleasure and will -〉는 한 문장으로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 사이에 들어간 삽입구이다. * 6절에서의 〈to ~〉는 5절과 연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해준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즉 (,) 다음의 〈which〉로 이어지는 관계사절을 여기서는 앞의 선행사(his glorious grace)를 꾸미는 제한적용법으로 해석하였다.

▣ STUDY & THOUGH

■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며, 우리에겐 오직 그 분이 목적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유만이 주어졌다. 그 자유란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가지며 은혜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분은 그의 백성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할렐루야!

■ Apart from Christ there is divine blessing that is salvation.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치료의 주님(막1:29-34)찬133장

창조자이신 그리스도는 병든 부분을 고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어떤 것을 치료하셨습니까? 첫째, 그는 모든 영육의 질고를 치료하셨습니다(29-31, 34). 열병에 걸린 시몬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육체를 고치셨고, 사람 속에 일하는 귀신을 명하심으로 영을 치료하셨습니다. 각종 병을 고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그는 신묘막측한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친히 인간이 되셨으며 그 치료는 그가 대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입니다(사53:5). 둘째, 그는 완전한 치료자이십니다. 부분적 일시적인 치료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치료를 행하십니다. 그 여인은 치료된 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셋째, 그는 귀신의 증거를 거절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만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화 전도자 예수님(막1:35-39)찬225장

하나님나라의 왕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그 전도를 위한 주님의 열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기도함으로 시작하셨습니다(35). 영혼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심은 전도자의 참된 본입니다. 둘째, 마을마다 가서 전도하셨습니다(38). 마을마다 친히 다니시며 쉴 사이 없이 전도하는 열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만큼 전도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처럼 그 일에 헌신할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39). 주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의 확증으로 귀신을 좇아내셨습니다. 그 표적으로 주의 말씀이 복음인 것을 확증하셨습니다(막16:20). 이런 전도의 본을 따릅시다.

수 치료의 길(막1:40-44)찬409장

능력의 왕의 치료는 어떻게 나타났는가요? 첫째, 겸손한 간구가 있었습니다(40). 예수님이 하나님나라 왕이심을 아는 그의 지식이 그로 경배하게 했습니다. 꿇어 엎드려 간구함은 그 분을 알 때 반드시 일어나는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진정한 경배는 진정한 지식을 전제로 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사랑이 치료의 근원입니다(41). 그때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밀어 접하심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그의 사랑이 치료의 근원입니다. 셋째, 주님은 깨끗케 됨을 명하셨습니다(41). 그리고 이 치료는 그의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창조가 일어났듯이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의 말씀은 그 자신의 권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에 목을 맨 사람은 치료의 강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목 주님의 전도 방법(막1:45)찬355장

여기에 또 주님의 전도방법이 나타납니다. 첫째,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45). 나병환자를 말씀으로 고치시는 사건은 그 왕이 오신 표적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전도방법 중 하나입니다. 막16:20에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주의 말씀의 신적권위를 확증하셨습니다. 둘째, 그것을 본 자가 증거합니다(45). 증인을 통해 전하게 하심은 주님의 방법입니다(행1:8). 목자들이 들은 것을 확인하고 증거한 것처럼 그리스도이심의 증거를 보고 증거하는 일은 주님의 전도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그 증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을 통해 나타난 주님의 일하신 증거를 볼 때 자연히 외치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셋째, 그에게 나아오게 됩니다(45). 찾아간 다음 자기백성은 그에게로 오도록 돼있습니다. 자원하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금 죄를 사하는 분(막2:1-12)찬190장

구속의 요점은 죄사함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부는 성자를 보내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서 주님은 죄사하는 분이심을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첫째, 그만이 능력이 있으셨습니다(5). 병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아신 주님은 그 죄를 제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고 그 결과로 오는 더러운 죄악을 제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이것을 제할 수 있으십니다. 둘째, 그만이 대속자이기 때문입니다(10). 그는 죄를 대신 지심으로 제하셨습니다. 죄의 원인과 죄책과 형벌을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해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셋째, 그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12). 죄사함으로 이루어질 구속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에 그 분이 친히 완성하신 것입니다.

토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막2:13-17)찬319장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은 오신 목적을 또 나타내셨습니다. 첫째, 그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14). 죄 문제 해결자가 자신임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그분만이 진정 구세주이십니다. 둘째, 외식자는 진정 그를 만날 수 없습니다(17). 의인이라고 자기 교만에 사로잡힌 자는 그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때 주님은 심판주로 임하십니다. 셋째, 그는 죄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15).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주님은 영적 병자인 죄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진정한 전도와 선교는 세상 속에 들어감으로 나타나야합니다.

하늘가족 중앙 MEMORIAL 장의사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_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킹장 완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I Gina Chong F.D. NJ LIC. 4504 I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 샌포드 에비뉴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 릿지필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져지 | 201.945. 2009

인/터/뷰

한부모 사역 유호정 목사

"깨어진 인성과 영성 회복되기를..."

매월 2회 만남...비전트립 단기선교 등 자녀 프로그램도 운영
각자 받은 비전 발견...자녀와 함께 복음에 헌신하는 것 목표

"한부모 사역을 통해 현재는 물론 미래의 가정까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가정을 이루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헤어짐의 아픔을 겪은 자들은 우리주변에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헤어짐의 아픔을 겪은 자들은 매주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 속에서도 만나게 될 정도로 이혼은 비그리스도인은 물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다.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을 고안하고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가까이에 있는 혼자된 자들에 대한 사역은 그리 활발하지 못하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돌싱(돌아온 싱글)들을 위한 사역을 해오고 있는 유호정 목사(LA비전교회 한부모 사역담당)는 이에 대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사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교회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역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교육부, 각종 성경공부, 전도, 주방, 주차 등을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유독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사역이 혼자되신 분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소위 '돌싱'(돌아온 싱글)들을 위한 사역인데요. 이 사역이 어려운 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문화가 한몫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유 목사는 성경에서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되고 있을 정도로 가정의 소중함은 매우 지대하지만 헤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분부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유교문화에 영향을 받은 체면문화와 수치문화가 더해져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풀러신학교에서 싱글맘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미국교회와 한인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공통된 것은 한인이나 미국인이나 돌싱들이 자신의 아픔을 나누는 데는 매우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하지만 차이점은 그들을 대하는 교회와 교인들은 그들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대해준다는 것이고 그것이 싱글맘 싱글대디 사역을 다른 사역과 마찬가지로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싱글사역을 펼쳐나가고 있는 LA비전교회 김대준 목사는 "유 목사와의 동역이 싱글사역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되게 했다"며 "LA비전교회의 한부모 사역을 통해 깨어진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LA비전교회 개척 때 '진주맘'이라는 이름으로 싱글사역을 시작했었다"며 "사역은 매주 토픽을 정하고 이에 맞는 30분 분량의 비디오를 통해 영상물을 감상하며 나머지 1시간 정도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사역을 했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홀로되신 분들과 대화를 할 때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의 마음은 공감을 하게 되는데 정작 그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며 "이 부분이 사역에 어려움으로 다가왔었는데 유호정 목사님과의 만남, 그리고 함께 동역함으로 어려운 부분이 해소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2007년 당시 풀러신학교 목회학박사과정 중에 있을 때 지도교수가 논문지도 미팅에서 여러 사역을 이야기하며 해당되는 사역을 논문으로 발표하게 했었는데 그 당시 싱글사역을 하고 있었던 유 목사가 지도교수의 권면과 지도를 통해 싱글맘 사역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며 전문지식을 쌓게 됐다.

유호정 목사는 "싱글사역을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풀러신학교에 재학 중인 선교사들을 위해 영어교육을 하러 갔었어요. 제가 가주 교육부에 성인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교사 자격증을 지난 99년에 취득했고 월넛교육구에서 2010년 6월까지 성인을 위한 영어교육을 했었거든요. 논문 역시 영어교육에 대해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싱글맘 사역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어요"라고 말한다.

그는 싱글사역을 하면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사역을 피하려고 했었지만 지도교수의 권면과 자신의 사역비전을 위해 4일간 금식기도를 하게 됐고 결국 하나님께서 싱글맘 사역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본격적인 싱글맘 사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LA비전교회에서 10년째 싱글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유호정 목사는 김대준 목사와 사역을 위해 끊임없는 대화와 기도를 하고 있다며 사역방향을 홀로된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 넓히게 됐다고 말했다.

유 목사는 한부모 사역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깨어진 인성과 영성의 회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인간에게 최초로 심어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히 세워지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비록 헤어짐의 아픔이 있었지만 한부모 사역을 통해 아픔의 생채기들이 아물게 되는 것, 예상치 못한 아픔으로 인해 깨어지게 된 인성과 영성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유 목사는 한부모 사역이 혼자된 자들이 사역을 통해 새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부모사역은 한 달에 두 차례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견학으로 공감형성을 하며 방학 때는 비전트립 단기선교, 그리고 UCLA 등 대학교와 비즈니스 업체를 방문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공부하도록 도전을 심어주게 된다며, "가장 큰 목적은 자신들에게 처해진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심어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가족이 자녀와 함께 선교 헌신하고 복음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락처: (949)627-1452

〈박준호 기자〉

멕시코 유키탄지역 메리다 현지목회자 세미나

강사 이윤석 목사, 상파블로장로교신학교 초청

본지 필자("기독교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부르클린제일교회)가 지난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멕시코 유키탄지역 메리다(상파블로장로교 신학교강당)에서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돌아왔다.

상파블로신학교 학장과 교수 3명, 지역 대표 목회자 및 17명의 목회자가 참석했으며 멕시코시티장로교 신학교교수 박수흠 목사가 통역했다.

주관은 멕시코 서부 티후하마 선교사 김도윤 목사가 맡았으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9시부터 저녁까지 10시간씩 강의했다.

이윤석 목사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내용과 방식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강의를 이어갔다. 이 목사는 특히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필요성과 중요성, 가치, 방식, 실제 등을 성경의 실례를 들어 강의했다.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윤석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현지 목회자들은 1) 이제까지 도덕적 설교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전하겠다. 2)구약에서 인물중심적 설교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인물이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겠다. 3)자신의 목회현장에서 설교한 내용에 대해 후회한다. 그러나 이제는 전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다. 4)목회와 일을 병행하며 목회했다. 그러나 이제 경제문제도 하나님께만 맡기고 말씀과 연구, 목회에 전념하여 복음적 목회자가 되겠다 등의 피드백을 보였다.

이윤석 목사는 강의를 마치고 1)30분 거리에서부터 2시간, 10시간, 12시간 타를 타고 온 목회자들의 열심은 참으로 대단했다. 2)설교에 대한 집중도는 완벽하고 그 긴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배우며, 함께 기도했다. 3)전하고 대답하는 제 자신에게도 쉬임 없는 질문과 함께 정말 흥분되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4)그 중에는 이미 웨스트민스터신학교, 리폼드신학교 출신들의 목사님이 계셔서 그 후배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었다. 5) 내년 1월 중에 다시 꼭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왔다며, "멕시코의 목회자들의 열정적 복음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모함 등에 크게 고무됐다"고 느낌을 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제72차 국제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

기간 : 2020년 3월23일(월) 오전9시 - 3월26일(목) 오후3시

장소 : LA 기쁨의교회
3938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담임 : 이희문 목사
문의 : (240)882-5272, (301)648-3322
eekacenter@gmail.com
등록마감일 : 2020년 2월2일(선착순 20명)
등록비 : $350(교재/숙식 등 일체 경비 포함)

✻전도폭발훈련이 새롭게 확 바뀌었습니다.
- 교재가 새로워졌습니다. (Classic E → Just EE)
- 교과 과정이 짧아졌습니다. (13주 → 12주)
- 복음제시가 단순화 되었습니다. (45분 → 25분)
- 결신율, 영접율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임상훈련의 유익 및 참가대상

1. 지역교회에 전도에 대한 비젼과 열정을 갖게 해주고 현장 전도를 통해 전도에 자신감을 갖게 해줌
2. 참가자격: 담임 교역자, 부교역자, 사모, 전도사, 선교사 및 평신도 지도자
3. 현재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인 경우: 담임교역자의 추천을 받은 부교역자, 2단계 이상 수료한 평신도 지도자

국제전도폭발 미주한인본부(Evangelism Explosion International Korean American Center)
3938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301)648-3322 www.eekac.org